

---

**2023년 제1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록**

---

## □ 심의개요

- 일 시 : 2023. 1. 26(목) 14:00 ~ 18:35
- 장 소 : 시청 영상회의실(본관 2층)
- 참 석 : 위원 11명
- 주요내용 : 미술작품의 가격, 예술성, 건축물과의 조화 등 심의
- 심의안건 : 11개소 29작품(조각 22, 회화 6, 부조 1 / 신규 23, 재심의 6)

## □ 심의결과

연 번		설치장소	종류	작 품 명	작품 이미지	심의결과		비고
건물	작품					가결	부결	
1	1	미추홀구 용현동 627-12일원	조각	공간놀이_Dream		○		
2	2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C1 블록	조각	꽃을 든 버블맨		○		
	3		조각	Dreams-Memories of Happiness		○		
	4		조각	빛의 숲		○		
3	5	미추홀구 학익동 용현학익1블록(1 단지)	조각	Flame tree_불꽃나무 01-2022		○		조건부
4	6	미추홀구 학익동 용현학익1블록(3 단지)	조각	달콤한 꿈		○		
	7		조각	Gateway		○		
	8		조각	생동하는 생명체... 에너지IO-22-01		○		
	9		조각	힐링의 숲		○		
	10		조각	무한의 길(Infinite Road)		○		권고
	11		회화	공간-자작나무		○		권고

연 번		설치장소	종류	작 품 명	작품 이미지	심의결과		비고
건물	작품					가결	부결	
	12		회화	도시산책자-별		○		권고
	13		회화	비행하는 도시		○		조건부
	14		회화	언어채집-Gathering of meaning		○		권고
	15		조각	크레아세이/새싹나무		○		권고
5	16	서구 당하동 223-1번지 일원	조각	Invisible value of Sculpture		○		권고
	17		조각	Figure Plants-물, 풍당		○		권고
6	18	계양구 효성동 24-15	회화	Hue		○		
	19		회화	Hue		○		
7	20	서구 당하동 589번지 일원(AB3-2BL)	조각	연-바라보다		○		
	21		조각	상상의 숲-까치호랑이		○		
8	22	부평구 부평동 738-43외 1필지	조각	염원		○		조건부
	23		부조	자연의 소리 -ECHO23B01		○		
9	24	송도동 396-7	조각	화이트웨이브		○		
10	25	서구 경서동 124-74번지 일원	조각	나빌레라-Navillera			○	
	26		조각	유기적 공간			○	
	27		조각	바람의 흔적			○	
11	28	서구 불로동 불로지구 9블록 1,2로트	조각	Totem for Wish		○		
	29		조각	Wellcomes			○	

## □ 회의록

사회자      안녕하세요. 문화기반팀장 김영주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1차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을 좌석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참석인원은 총 11분입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작품은 총 11개소 29작품이며, 조각 22작품, 회화 6작품, 부조 1작품입니다. 이중 신규는 23작품, 재심의를 6작품입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안건 총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점수표 작성 방법(채점 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를 보시면, 각 5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이 만점이며, 70점 이상이면 적합, 70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적합” 판정이 과반수인 경우에 해당 작품이 가결됩니다. 채점시 70점 미만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리실 경우에는 채점표 하단 비고란에 그 사유를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반수이상 찬성하여 가결된 작품 중 특별히 안전성, 도시미관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부 가결” 또는 “권고사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집계 후에 위원님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서 원안 가결을 할 것인지 조건부 또는 권고 가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며 해당 사유에 대한 의견 동의가 과반수 이상이면 가결됩니다. 참고로 “권고사항”은 군구와 심의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종료되지만, “조건부 가결”의 경우는 향후 조건부 이행 여부를 심의위원님들께 서면을 통해 재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정확한 회의록

작성을 위해위원님들께서 마이크를 가까이 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오가는 모든 대화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 외 나눠드린 사전심의서와 출품 및 심의이력 자료를참고하여 심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건축물 미술작품은 도시환경 개선과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가들에게는 창작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인의 전공 분야뿐만 아니라 주변과의 조화나 공공 미술로서의 역할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시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작품은 총 29건입니다. 안건이 많으므로 빠르게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 총 12명 중 11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예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작품채점, 집계 결과발표, 심의의결서 작성, 폐회선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작품 채점 순서는 작품별로 심의도서 검토

후 공개질의, 위원별 채점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1차 작품 회의에서는 29작품을 심의하게 됩니다. 순서는 신규 안건 먼저하고 재심 안건은 그 다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미추홀구 용현동 627-12번지 일원

### 1) <공간놀이\_Dream>

위원장        첫 번째 작품 <공간놀이\_Dream>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1번 작품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작품에 대한 의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외부... 혹시 소리가 들리나요?

○○○        거기 버튼을 누르시면.

○○○        버튼 눌렀는데, 지금.

○○○        예.

○○○        혹시 소리가 들리나요? 예. 그 지금 작품 내용 보면 이게 지금 설치 위치는 공개공지에 지금 돼 있는데 지금 도면이 들어와 있는 거는 공개공지가 지금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내부는 표현이 돼 있는데 공개공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고. 그래서 현재 지금 밑에 지금 경계석으로 표현된 건지, 좌대로 표현된 건지 그런데 작품에서는 좌대라는 말이 지금 없기 때문에 공개공지 내에 있는 시설물의 일종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경계석으로 봐야 될 건지 아니면 사람이 앉을 수 있는 플랜트 모양으로 봐야 될 건지. 지금 공개공지 도면에 나와 있는 선을 봤을 때는 일반 경계석하고는 라인이

틀려서 뭔가 시설물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미술 작품에서 제가 봤을 때 미술 작품 그 작가분께서도 좌대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작품의 구체적인 지금 주변 환경 내용이 좀 자세하게 표현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저 작품을 봤을 때는 좌대를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현재 도면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저 그림 하고는 좀 크기가 좀 틀려요. 그러니까 공개공지에 나와 있는 면적은 꽤 큰데 작품을, 작품에 나와 있는 수치로 잴 때는 한 반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그림상으로는 저 그 녹지 안에 딱 차 있는 걸로 지금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이제 설치가 되면 저 외부 테두리에 있는 부분하고 작품하고의 크기가 완전히 틀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외부 환경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 근데 저기 위원님께서 좌대를 했으면 한다고 하셨는데 그 좌대가 만약에 저기에 들어간다면 어떤 한정된 공간을 저 형태에서는 주어지는 것 같아서 좌대는 저 상황 속에서는 들어가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저 경계석이나 저런 거 봤을 때는 이 현장에서 주어지는 공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이 작품이 어떤 두께가 일률적인 어떤 조각으로 되어 있어서 두께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조형적으로 더 안정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공개공지는 미추홀구와의 협의 대상이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인천시청하고 그러니까 인천시청하고 지금 협의를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개공지에 설치를 하겠다는 작가의 의도면 공개공지에 대한 정

확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지금 하나도 없는 게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 ○○○ 선생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아, 예. 저는 그 도면에 나와 있는 기초 콘크리트하고 조형물하고 이제 접합 부분이 좀 걱정돼서 한번 심의 전에 한번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맨 처음 보내왔던 자료에서는 구조안전서가 조금 부족해지고 그거를 한번 다시 한 번 보내달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받으니까 구조 안전성은 좀 확보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 네. 좀 더 구체적인 논의사항은 채점 결과 나온 다음에 하면 어떨까요? 네. 그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채점 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점 중 )

## 2. 서구 원당동 점단신도시 C1 블럭

### 2) <꽃을 든 버블맨>

위원장 네, 2번부터 4번까지는 한 장소에 설치된 작품입니다. 심의는 두 건으로 나눠서 2번을 먼저 하고 3, 4번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번 <꽃을 든 버블맨>에 대해서 사회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2번부터 4번은 ...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네, ○○○ 선생님.

○○○ 예, 제가 그 사전심의서에도 언급을...

사회자 붉은색 불이 들어오면 그 마이크가 작동하거든요.

○○○ 아, 예. 그 사전심의서에서도 좀 언급을 했는데 구(球)라는 기성 구(球)



라는 게, 제가 읽기에는 기성 구(球)라는 게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球)라는 또 소재를 다루는 작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모 작가 작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작가분이 이제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흔한, 다소 흔한 구(球)라는 소재로 이제... 물론 이제 곡선적인 어떤 아름다움도 있을 테고 하겠지만 좀 스테인 구(球)가 좀 이렇게 너무 난무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어서 저는 사전 심의서에서 이제 좀.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다음 작품하고 또 태권브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 작품하고도 또 연관이 되어 지면서 이런 좀 어린이 놀이공간이나 이런 데 적합할 것 같은 작품이 이제 주거 환경인데. 아파트 맞나요? 오피스텔인가요? 아파트인가요?

사회자      근린생활 시설입니다.

○○○      예, 예. 그...

사회자      판매 시설도 있고, 문화 시설, 업무 시설.

○○○      아, 예, 예. 위에는 이제 주거 시설이고.

사회자      예, 예.

○○○      주상복합 개념인 것 같은데.

사회자      예.

○○○      좀 그런 환경에 좀... 같이 묶어서 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 2번, 3번 작품을. 좀 적합성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      네, ○○○ 선생님.

○○○      일단은 작품, 그 1번을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복합시설이다 보니까 외부 환경에 있어서 녹지면적이 아주 최소화, 법적면적만 거의 아마 합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또 공개공지에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근데 지금 1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녹지 한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작품을 봤을 때는 작품 주변에 결국은 법적 면적 내에 법적 수량의 조경수를 넣으려면 그 한정된 녹지 안에 이제 수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작품은 그러지 않아도 작은 녹지 안에 녹지 한 가운데 지금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작품이 나무속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작품을 감상하는데 오히려 이 나무들이 이제 지장, 경관을 이제 오히려 해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작품이 도로 쪽으로 좀 위치를 옮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작품 예시를 보면 작품에는 항상 이 밑에 그 좌대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좀 다들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설치를 해야 될 작품에는 지금 잔디밭 위에 이렇게 좀 돼 있고요. 스테인리스 도장, 우레탄 도색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유지 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잔디밭에 예초를 한다면, 예초기를 돌릴 때 우레탄 도장이 까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레탄 도장은 한 번 벗겨지면 전체가 다 일어나는 그런 우려가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 작품 개요 및 설명에 나와 있듯이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좌대 표현이 좀 됐으면, 좌대가 아니어도 포장으로 일부 구획을 좀 저렸으면 유지관리하는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작품은 아까 로봇 태권브이 그림. 로봇 태권브이는 안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지만 지금 MZ세대나 지금 세대들은 로봇 태권브이에 대한 걸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대가 좀 아우를 수 있는 이제는 좀 뭔가 다른 개념의 그런 게 있지 않았으면 할까 합니다. 근데 전등은 상당히 이제 현대적인데 모양은 어느 정도의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니까 이것도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지금 2번 <꽃을 든 버블맨> 그 등글등글한 거, 그걸 먼저 심의 끝나고 나서 다음에 3번, 4번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다음에 평가하실 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견 없으시면 채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채 점 중 )

○○○ ○○○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 네, 네.

○○○ 미술품 가격 볼 때 산출내역서가 한 장이 있는 경우가 있고, 좀 뒤에 상세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한 장인가요? 이게 가격 적정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인력이 얼마 들어가고, 그걸 판단을 해야 하는데 단지 숫자만 나와 있다 보니까 이 적정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사회자 가격과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가 지금 별도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아마 이제 작품 계약한 계약서와 그다음에 거기에 작품 계약서에 대한 산출내역이 일부 이제 들어오기는 합니다.

○○○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작품은 그나마 여기 한 장 말고도 크레인이나 들어가긴 하는데 그것도 사실 빈약하거든요. 이게 크레인이 어느 정도 쓰는 건지, 인력이 얼마쯤 투입되는 건지 그걸 좀 봐야 재노경을 따져가지고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이 적정성을 앞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단지 그냥 숫자로만 판단하고 크기와 재질로만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보안이... 여기서는 사실 저도 이거 판단하기 힘든 게 나중에

보안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사실 이게 건축물이나 어떤 시설물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비용 산출 낼 수 있는 게 명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작품을 하면서 사실 그 산출기준으로 보면 이게 그 정도 돈이 안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작품이라는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떤 물건하고 비교하기는 사실은 좀 이렇게 분류해서 봐야 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설치하는 그런 것들이나 그런 비용들 같은 거 일일이 세분화하기에는 대략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작가가 아마 그게 가능할 텐데,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저도 작품에 대해서 작가님들이 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저는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나와서 작품, 이제 작가님 작업실에 나와서 그러면 건축현장에 와서 설치할 때가 이제 비용이 산정되는데 그거는 좀 판단해 볼 여지가 있긴 하거든요.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 그 크레인을 쓴다고 할 때 그게 어찌면 1시간에 설치가 끝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마음대로 안 되면 하루 종일 걸릴 때도 있거든요.

○○○ 맞습니다.

○○○ 예, 그러니까 그걸 일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 힘들고 상황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 예, 채점 다 끝나셨나요? 네.

## 2.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C1 블럭

### 3) <Dreams-Memories of Happiness>

### 4) <빛의 숲>

위원장 이어서 3번 <Dreams-Memories of Happiness> 하고 4번 <빛의 숲>에 대해서 사회자 선생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 그 로봇 태권브이요. 그것 좀 올려주시면. 그 표면의 어떤 질감을 보면 탁월한 작업들이 요즘에 많이들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타공을 하게 되면 그 이물질들이 고이게 되고 그것들이 나중에 유지 보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거든요. 전에 저도 어떤 곳에 가서 요철이 많거나 어떤 벌들이나 아니면 어떤 벌레들이 그 안에 번식하기 좋은 어떤 환경을 조성해서 이것들이 부식이 되거나 쉽게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을 떠나서 저는 어떤 그런 부분 파공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좀 있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구조에서 만약에 이걸 꼭 파공을 해서 한 다라면 아이들이 손에 닿지 않게 아이들이 잘못 이걸 타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 안에 손이 끼거나 하는 그런 어떤 위험성도, 위험성도 유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뭇잎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인 어떤 변화들은 다양하게 표출 되는데 같은 형상들이... 나무도 지금 하는 건가요? 아니면

○○○ 예, 맞아요.

○○○ 네.

○○○ 네, 4번 <빛의 숲>.

○○○ 예, 예. <빛의 숲> 같은 경우에는 같은 형상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다소 지루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어떤 저 안에서도 어떤 다양한, 어떤 변화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예, 그 제 개인적인 생각 4번 <빛의 숲>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부 구조가 있고 구조를 나눠 봤을 때는 하부 구조가 있고 이제 두 개로 이제 나눠진 구조이고, 또 상부 구조는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고민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작가의 고심의 흔적도 많이 보이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부 구조가 이게, 이게 과연 상부 구조와 조화... 시각적 조화만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각적 조화가 과연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도 한번 심의를 하면서 이거는 좀 ‘제 개인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조형성에 대한 문제라 작가가 이런 나름대로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 굳이 이렇게 터치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그건 이제 일반인이 보더라도 좀 뭔가 언밸런스하고 좀 적절한... 이제 일반인들이, 말 그대로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렇게 시각적으로 잘 연결될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전 검토서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일부 좀 적었습니다.

○○○

하나만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작품 보면 이게 LED가 나무 안에 쭙 들어가서 마치 줄기처럼 돼 있어서 빛을 바라고 있는데 그 건축물을 항상 보다 보면 빠진 게 유지관리 측면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나마 좀 고민이 된 게 이게 점검부를 통해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점검부를 놓기도 뭐하고, 왜냐면 LED 등을 나가게 되면 나중에 등을 좀 관리하는 측면도 되게 있고 한 번 설치하면 LED가 오래 가긴 하는데 초기 한 1~2년 정도는 항상 하자보수가 나더라고요, LED등 같은 게. 차라리 제 생각은 안에서 LED를 넣어서 빛을 바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차라리 조명을 쏘아서 그렇게 하는 게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어떨까 싶거든요. 예,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 이 작품의 경우는 안에서 빛이 새어 나오는 게 매력인 것 같은데.  
○○○ 바깥에서 하면 그런 효과가  
○○○ 맞아요.  
○○○ 없어지거든요.  
○○○ 저도 그거를 동의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그게  
말 그대로 빛이 갑자기 고장 나서 없으면 그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가도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기 때문에 점검부에 대해서 선  
경을 쓰기 때문에 그것만 좀 나중에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만  
고민만 조금 보완이 되면 괜찮은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 네. 일단 채점을 끝내시고 그리고... 아, ○○○ 선생님.
- 네, 지금 다른 거는 이제 대지 위에 이제 조형물이 세워지는데 이 마  
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옥상정원이거든요. 건축물 위에 들어가는 부분  
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기소가 이제 깊게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옆에 폭을 조금 더 안전성을 줘야 되는데 나머지 두 전에 있었  
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을 한 번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그리고 좀 아쉬운 건 이 지금 표현했을 때 저게 지금 옥상에 설치되는  
부분인데 그 밑에 이제 다음 조감도나 이런 거 보시면 밑에 층에서 보  
이질 않아요. 외부도 시설이 건물 외부 장식으로 인해서 옥상이 다 덮  
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감도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항상 표현은 이  
부분 상세를... 그러니까 지금 저 화면에 보여지는 건 작가가 그 임의  
대로 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외부에서 저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품 가액에 비해 좀 내용이 너무 단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지금 공공주택이 아니고 복합시설이 이제 끼어있다 보  
니까 미술 장식품에 할애된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뭔가 조금 아쉽다

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 그게 그 옥상정원, 그 슬라이드 한 번 다시 보여주시죠. 이거는 밑에서 본 거고, 예. 이게 위에서 본 거고.

○○○ 대부분 옥상정원에 그 두께 위에 이제 조경이라든가 시설을 할 때 최소의 높이가 제가 알기로는 한 5~60cm 이하가 될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옥상 위에 이제 정원을 구성할 때 기초 베이스 되는 흑토라든가 이런 부분의 두께가 50cm 이하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무게의 하중 때문에 건축물 자체의 구조에 그게 감안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물론 이제 알루미늄이라고, 이런 걸로 해서 무게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 기초 부분이 그 안에 들어가기에는 이게 상대적으로 높잖아요. 그리고 사실 옆에 폭을 더 보완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이렇게 계획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성 문제에서 살짝 좀 신경이 좀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여기 서류에 보면 구조검토 부분이... 예, 없어요.

○○○ 구조검토서가 거기 첨부되어 있나요?

○○○ 없는 것 같거든요.

○○○ 아니, 구조 안전 확인서 있어요.

○○○ 아, 구조 안전 확인서. 아, 있네요,

○○○ 지금 이 부분이...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제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무게감 때문에 이거를 받으신 것 같아요. 전체 하중하고 자체 알루미늄 소재 때문에.

○○○ 근데 이게 높이에 대해서 흔들리는 부분이라든가 특히 옥상 같은 경우에는 풍속 같은 게 조금 셀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조금 이



넓이, 폭, 기소 같은 거는 조금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아, 그 작가님이 우려하시는 게 기초 콘크리트하고 이제 기둥, 이제 포스트가 올라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건지.

○○○ 네, 그렇죠.

○○○ 이게 알루미늄 자체, 무게에서는 뭐, 그런 부분에 풍속이라든지 넘어지는 거, 이런 부분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 네, 맞습니다.

○○○ 이게 높이에 비해서 넓이에 이제 맞춰진 기소 부분은 좀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좀 그 부분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나중에 검토해서 메일로 보내드려도 될까요?

○○○ 예.

○○○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 그런데 제 생각에 약간의 그 애매함이 있기는 한데요. 그 자체의 무게를 앵커라든가 이런 부분은 고정이 좀 확실하게 돼서 그 부분이 있다면 무게 자체가 세지는 않으니까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앵커 부분이 박혀지는 것도 어차피 건축물 안에 박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매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정도는 다시 확인을 좀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생각입니다.

○○○ 네, 채점이 끝난 다음에 다시 그런 의견을 거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채점 중 )

### 3. 미추홀구 학익동 용현학익1블록(1단지)

#### 5) <Flame tree\_불꽃나무 01-2022>

위원장        네, 5번. <Flame tree\_불꽃나무 01-2022>에 대해서 사회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5번 작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이 작품은 분수 내부에 설치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처음에 도면 계획을 할 때는 분수 내부 지금 작품이 들어가는 자리에 상당히 높은 분수가 지금 높이가 많이 올라가는 노즐로 좀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건 건축주한테 어떤 좀 작품에 대한, 작품을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주변에 분수 시설들이 그러니까 노즐이라든가, 분수 노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품을 위한 시설로 같이 좀 협업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작품에 따른 좌대를 지금 건식, 그 판자로 지금 설치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거는 금속으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그럼 좀 무게감이 있고 작품을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        네, 선생님.

○○○        저는 작품은 원래 작가분이 원래 하시는 작품이니까 위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좌대가 되게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수경 공간에 굳이 이렇게 좌대를 갖다가 안 넣고도 어떻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깔끔하고, 지금 이 좌대가 이 수경 공간에 비해서 좌대가 차지하는 게 굉장히 둔해 보이고 그렇거든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한번 권고사항을 한번 해

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 좌대를 없애는 대신 작품 크기를 좀 더 확대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저 밑에 있는 어떤 원을 살짝 물과 잠기는 듯하게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저기 지상에 놓는 어떤 그런 구조로 좌대를 만들어놔서 조금 그 시각적으로.

○○○ 근데 저기 좌대가 조명을 달 수 있는 그런 장치도하고 있더라고요. 조명이 그러니까 좌대가 있어서 조명이 들어갔잖아요.

○○○ 아, 그런데 그 물속에서도 조명이 가능하니까요. 수중 등으로 가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 지금 보니까, 보니까 지금 이렇게 밑에 보면 이렇게 약간 스테인 봉이 하나 내려와는 있어요. 그냥 그걸로 그냥 이렇게 쪽 내려와도 충분히 이 하중은 다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겨울에는 물을 뺄 거 아니에요, 어니까. 그렇게 뺐을 때에도 그 자체가 그냥 작품처럼 보이기 때문에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이 좌대 빼면 되게 어색할 것 같이 보여요.

○○○ 네, 네.

○○○ 물속에 이렇게 살짝 뭐 잠겨도 좋고, 약간 올라와도 좋은데 그런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예.

○○○ 그럼 작품을 한 10% 정도 키운다든지 하면 오히려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좌대를 없애는 대신에.

○○○ 조건을 걸어서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 콧속에 있는 달팽이관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우리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해부학적으로 아마 그걸 참고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책이 말하는 신체 없는 기관, 그런 느낌도 들고.

( 채점 중 )

#### 4. 미추홀구 학익동 용현학익1블록(3단지)

##### 6) <달콤한 꿈>

##### 7) <Gateway>

위원장        다음 6번부터 15번까지 총 10건입니다. 한 장소에 설치될 작품이기 때문에 심의는 2건씩 나누어서 5번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번 <달콤한 꿈>과 7번 <Gateway>에 대해서 사회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자        6번부터 15번까지 총 10작품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제가 한 말씀 드려도

○○○        네. 네, 말씀하세요.

○○○        예. 6번, 7번 같은 경우는 제가 사전심의 때 딱 작품을 보고 가장 처음에 봤던 게 가격적인 면인데요. 6번이나 7번 같은 경우, 특히 7번 작품 같은 경우는 형태나 사이즈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과다 책정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7번 같은... 다시 7번부터 또 계속 얘기하자면 너무 단순하고 어떤 저게 이제 벤치로 쓰이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스테인리스 스틸 위에 그냥 우레탄 도장을 한 거라서. 어떤 그런 실용적인 면, 어떤 조형적인 면에서 좀 다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먼저 가장 든 작품이었고요. 6번 작품 같은 경우는 이 작가님이 이렇게 작품을 덩어리 적으로 표현하는 센스나 어떤 이런 색채적인 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이제 저런 아파트에, 저런 공간이랑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직선적으로 꽃힌 저 수수깡, 혹은 덩어리를 그냥 수수깡처럼 꽃은 저런 형태나 저런 것들이 좀 예술적이라고, 뭐 조형적인 면, 어떤 그런 재미가 좀 덜 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저 맨 밑에 있는 저 봉 같은 경우는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이게 스테인리스죠? 음. 네, ○○○ 선생님.

○○○ 네, 지금 7번째 작품 같은 경우, 7번째 작품 경우 실제로 여기에 앉지, 앉기는 힘든 그런 거고요.

○○○ 그러니까 저게 스테인리스에 단순히 우레탄 도장을 했기 때문에 여름에는 엄청 뜨겁고 10월만 돼도 엄청 차가워서 앉을 수가 없고요. 특히 저 위에 있는 요철 때문에 더더욱이 앉아서 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용적인 면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저게 이제 앉을 용도로 사용되는 것 같지는 않고, 조형물이기 때문에 앉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뭐 반대로 디테일을 봤거든요. 앞에는 좀 심플하면서도 기존에 앞선 던 상황에서 좀 다르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좋게 봤습니다.

○○○ 저는 6번 같은 경우에는 앞애가 \*\*\* 옆에 있는데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그런 부분이 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조형물이, 물론 디테일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가벼운 것도 충분히 기능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그 의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전 심의에서도 얘기했지만 공공 구조물하고 조금 더 연관을 지어서 아예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프레임 같은 걸 보강을 조금 더 해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거하고 같이 접목을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사이즈도 사실은 좀 애매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질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

은 것도 좀 애매해서 상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작가적인 의도를 이렇게 막 뜯어고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의도가 뭐 확실하게 그렇게 있지 않으시다면 그런 공공 시설물하고의 연관을 조금 더 생각해서 가지고 상판 프레임을 대리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바꿔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검토는 좀 해주시는 게, 이게 조형물 자체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시설물하고 겹쳐져서 그게 더 활용되는 것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검토를 좀 해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조금 약간 조형물 자체로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아까 얘기하셨던 벤치나 이런 거 하기에 좀 애매한데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충분히 저거 그런 활용도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한, 본인이 하시는 거 아니면 한번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한 번 좀 검토는 좀 필요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그 약력, 작가의 약력들을 보니까 많이 조형물을 해보시지 않은 그런 작가들인 거 같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건축물 미술작품이 물론 좋은 작품, 조형성 모든 걸 갖춘 그런 작품들이 들어가는 것도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어떤 작가들을 좀 배려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본인의 작업을 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했던 부분들은 좀 양보하면 좋겠지만 이제 같이 시작하고 막 하려고 하는 그분들한테는 이런 것이 작업을 하는 데 어떤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7번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작품도 이런류의 작품을 계속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작품의 연장선상에서 조형물도 같이 연계성을 갖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작가들이 전에는 조형물과 작품은

이원된 어떤 다른 개념으로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자기의 작품과 조형물과의 연계성, 연관성을 갖는 작품을 같이 고민하면서 그 안에서 창출되어지는 어떤 조형물들이 더 어떤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사실 조형물을 하고 나면 어떤 그 공간에 대한 것만 해석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면 상당히 어떤 공허한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뭐 돈은 좀 들어올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 작품을 내가 또 어떻게 풀어가지 하는.’ 하는 이런 고민들. 그래서 저는 어떤 조형물이 자기 작품하고 연계성을 가지면서 고민하는 어떤 그런 흔적이 묻어나는 작품들도 우리가 같이 심의를, 심의 안에 이렇게 포함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 네, 그 의견도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 저, 일반시민으로서 그냥 하나 의견을 제시하면 이 작품 이름이 <Gateway>이지 않습니까?

○○○ 네.

○○○ <Gateway>는 결국에는 문을 지나서 다른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문 밖에 이제 파란색 문을 통해서 나가면 같은 색이 이어지다 보니까 같은 공간으로 느껴질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측면에는 또 노란색이더라고요. 그러면 나가게 되면 차라리 노란색으로 이제 그 하부판, 지금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그 사람 만나는 부분이 지금 차라리 노란색이면 다른 공간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작품명이 이제 <Gateway>라서 이제 문을 지나서 다른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측면이 있는데 색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냥 같은 공간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 그러니까 반대편 쪽에서 봐도 그 벽이 블루로 보인다는 말씀이지요?

○○○ 예, 그러니까 파란색 문을 지나가면 노란색이 이제 하부에 이어지면

‘아, 내가 다른 공간에 이어졌구나.’ 하는데 밑에 앉는 부분이 다 파란색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단지 노란색은 측면에만 이어져 있고. 그러면은 작품을 의도한 게 그냥 단지 조형, 공간을… 이제 문이라는 거는 사실 건축에서는 공간과 공간을 이어지는 개념으로 문을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문을 지나서 그러면은 같은 공간이다 보니까 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건축학 쪽에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작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좀 궁금합니다.

○○○ 이 작품은 피비우스의 띠를 저기 각 면으로 변형한 거라고 그러는데 피비우스 띠에서는 한쪽 면이 계속 이어져서 똑같이 그리로 연결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색깔을 이렇게 칠해서 면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한 면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을 칠했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님 말씀대로 차라리 그러면 좀 제목을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 차라리 그러면 작품 명 안에는 모든 게 작가님의 의도가 반영된 게 이제 작품명으로 드러나게 되는 건데 <Gateway>는 저는 문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오히려 작가님의 의도를 좀 반영치 못하니까, 조심스러운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 네.

○○○ 사실 저는 이제 아까 ○○○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항상 수궁을 하는데 그리고 또 특히 젊은 작가들은 많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이 작품 되게 비관적으로 봤거든요. 왜냐하면 게이트(Gate)라는 거는 사실 너무 많아요. 특히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크기가 너무 작아요. 이 가격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단순한데. 실질적으로 크기는 그렇게 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



문에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조금 크기를 갖다가 높이를 좀 키운다든가 이렇게 돼야지만 좀 걱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젊은 작가들을 도와주고 그러는 거는 저는 뭐 200% 찬성을 하는데요. 또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그 작가가 발전을 하느냐 하면 사실은 ‘이게 이렇게 돼서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계속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 요소가 사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이게 뭐, 지금 2024년 12월 조형이 된다고 그러면 한번에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작가들이 오히려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작가가 금방 바뀌고 그렇지 않는 것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렇게 작품을 쪽 보다 보니까 이 설명석이 작품 할 때는 작가님들은 설명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나요? 이 설명서하고 너무 현대적인 구조물하고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 구조물 안에 그 내용을 갖다가 뭐 이렇게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설명석이 이게 너무 정말 올드해가지고.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안 쓰시나요, 하실 때? 왜냐하면 저는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쭙보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설명서는 내용만 중요하면 그냥 알아서 어디다가 붙이건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설명서까지도 작품의 한 범주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런 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현대적으로 좀 세련되게 된 것도 다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작가님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전입니다, 그냥.

○○○

저는 이 작품들을 보면서 도면이 지금 계속 다 틀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간을 이렇게 좀 봤는데 처음에 마스터플랜에 나와 있는 내용하

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이 몇 페이지냐면 설치 위치. 거기 그 마스터플랜 보시면... 아니, 아니, 전체 나와 있는 그림. 15페이지 정도. 네, 거기에 나와 있는 지금 투시도 시점이라고 이제 원형 표현되는 부분하고 또 다음 장을 보면 다음 장에 희미하게 돼 있는 \*\*에 나와 있는 녹지도 사이즈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걸 또 전체적인 조감도로 내려다보면 엄청 넓은 공간에 지금 표현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 실질적으로 뒷 폭이 대략 한 나무 심은 거 빼고 하면 한 5m 50,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이 작품이 들어가면 거의 작품이 앞뒤 움직임 없이 이제 딱 차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무슨 넓은 그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전체도면하고 틀리고 또 팻가든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지금 구성이 돼 있는지. 만약에 저 팻가든에, 우리가 일반적인 팻가든에 가보시면 그 펜스가 쳐져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만약에 펜스가 있다면 펜스 사이에 녹지에 어떻게 보면 중앙의 녹지에 지금 작품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항상 표현할 때, 이거는 우리 인천시청에서 아마 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조감도 내지 마스터플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거에 맞춰서 작품을 입혀줬으면 한나라는 그 내용을 그 다음 작품도 역시 도면이 또 틀려요. 마스터플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또 이제 이렇게 자르다보면. 그러니까 도면이라고 표현돼 있는, 그러니까 그림이라고 표현돼 있는 내용들이 지금 다 좌우가 다 틀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중요한 게 하나 빠진 게 제가 봤을 때 그 계단실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부분에, 정 가운데 건축물 계단실로 들어가는 길인 것 같은데 그 계단실을 중심으로 이제 3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원형이라고 표현돼 있는 거의 니은자로, 역 니은자로 표현돼

있는 그거는 아마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실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품을 표현할 때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걸로 이제 표현이 되죠. 그러다보면 이제 저희가 이 그림만 갖고 이제 평가를 하고 이제 또 품질 점검단이 나가서 봤을 때는 전혀 의외의 상황이 이제 되는. 그런 부분들은 인천시청에서 작가들한테 주변 환경에 대한 걸 웬만하면 최대한 실제와 가깝게 유지될 수 있게끔 해주고 만약에 그게 아니 다라고 하면 우리 작품이 돋보이게끔 주변 환경을 바꿔달라, 그러니까 구조물이 아닌 이동이 가능한 수목이라든가,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동을 시켜야 된다는 경 고를 한번 내려주시면 작품, 작가들이 작품을 설치할 때 주변 환경에 꼭 영향을 받기보다는 주변 환경을 좀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변 환경에 대한, 예.

○○○ 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채점 가시죠.

( 채점 중 )

#### 4. 미추홀구 학익동 용현학익1블록(3단지)

8) <생동하는 생명체...에너지IO-22-01>

9) <힐링의 숲>

위원장 네, 다음으로 8번 <생동하는 생명체...에너지IO-22-01> 그리고 9번 <힐링의 숲>에 대해서 사회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아까 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어떤 작품이 이렇게 뚫려진 공간들이 많아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이물질들이 고이거나 했을 때 어

면 상황들이나 유지관리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에 첨부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구조적인 형태나 이런 것들은 뭐 조형성으로는 나쁘지는 않은데 항상 그런 부분에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근데 이 정도 공간의 틈이 있는 것 정도는 뭐가 껴서 이렇게 앉기에는 공간들이 좀 있어서, 아까 했었던 그런 거 하고는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비나 뭐가 이렇게 야외에 있다고 하면 다 씻겨 나가서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 볼륨감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다 막아서 면이 있는 걸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유지보수라는 게 항상 이제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제 개인 생각에는. 이 정도 공간에 면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거는 다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써주신 장점, 우수한 점 하고 개선할 점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까 그 수변에, 물 위에 설치된 작품은 오히려 좌대가 없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본 작품 같은 경우는 저런 뭐라 그럴까, 좀 원형적이고 다분히 인위적인 형태가 녹지공간에 그냥 딱 하니 던져져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거 아까 그 이제... 또 저런 면들이 좀 날카로운 걸로 제가 보기에는 보여지기도 하고. 사실 심의위원회라는 게 어떤 작품성 가격 대비 작품 규모 이런 것들도 다 판단을 해야 되지만 이제 향후 사고의 소지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도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좌대가 좀 필요한 작품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전체적인 작가적... 이제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흔적들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뒤에 배경과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런 직선 구조, 그것도 잘 조화가 되는 것 같고. 아무튼 흔적, 작가적 노력의 흔적도 보이고 해서 작품의 작품성에서는 저는 결격사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렇게 잔디 위에 던져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써는 좀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만약에 이제 이 작품은 제 뜻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 심위원님들이 부결을 시키고 이렇게 가결 조건이 되면 그런 것도 한번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으로라도 좌대를 어떤 형태로까지 제가 제안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제 좌대가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은 거의 제 개인적으로 확신과 같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게.

○○○ 이 안전도 채점 결과가 나온 후에 좌대 설치를 권고할 것인가 아니면 조건부로 할 것인가를 의논하기로 하죠.

○○○ 저는 마스터플랜을 봤을 때 이게 다 평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혹시나 지금 그린 파크라고 돼 있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살짝한 50cm 정도 띄운다고 하면 지금 이 그리고 8번 작품은 경사면에 세워질 우려도 좀 있습니다. 조감도 평면을 보면 약간 좀 입지가 이제 단차가 있는 걸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8번과 9번 작품이 오히려 위치가 교체가 되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일단 뭔가 좀 이 공간하고는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8번 작품은 아까 그 안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도 평철로 돼 있는 걸로 지금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각관으로 돼 있어서, 각관으로 저렇게 비틀어서 저걸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저게 어떻게 나올지 되게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되게 어려운 작품일 것 같아요.

○○○

네.

○○○

9번 <힐링의 숲> 작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지금 아까 위치가 이렇게 지금 9번 작품하고, 8번 작품하고 바뀌었으면 한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8번 작품이 이런 이 자리에 오면 적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림 상으로 이 작품이 그리로 간다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 <힐링의 숲>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의욕이... 저는 지금 뭐, 누가, 작가가 어느 분인지는... 특히나 아까 젊은 작가, 뭐 이런 건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아무튼 의욕이 넘쳐서인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작품 규모도 그리고 이제 색상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좀 고민한 흔적도 있고 오히려 본 작품, 이 <힐링의 숲> 작품이 오히려 이렇게 결격 사유가 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습니다.

○○○

네.

○○○

저도 이거 자체가 이제 좀 유기적으로 라인이 좀 있기 때문에 간혀 있는, 옆에 수목이 좀 있거나 간혀 있는 공간보다 오히려 탁 트인 공간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자리로 갔다고 하면 거기 주변에 이제 수목 그런 배치가 워낙 많아서 오히려 작품이 좀 묻혀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김창진 작가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

네.

○○○

근데 여기 이거 그 LED 조명을 안에 넣는다고 돼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교체하거나 그럴 수가 있죠?

○○○

거기 점검부 설치가 돼 있고요.

○○○

아니, 점검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봐도... 점검부는 그냥 점검부인 거 같아.

- 근데 아까 그 <빛의 숲>에서는 딱히 이제 빛을 발하기 때문에 좀 걱정 되긴 했는데 그때는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저녁에 사람이 거주 안 할 걸로 간주해서 의견을 제시 안 했는데, 지금은 이게 공동주택이고 이제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각, 야경사진을 보면 스테인리스 까지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LED라면. 그렇게 많이 밝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주변 보면 1층에는 판매시설이나 어린이집 같은 게 있어서 그나마 상관없을 것 같은데 고층 보면 이게 빛을 할 때 민원이 있지 않을까. 그 거리상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우려는 되긴 합니다.
- LED조명은 그렇게까지 빛이 강하게 발생하지는 않는데 지금 이건 시각적인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해서 좀 밝게 표현한...
- 예, 빛이 들어왔다는 느낌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 예, 예. 밝게한 것 같아요.
- LED도 조도를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 예, 룩스(Lux)가 하나까요.
- 별로 뭐, 보통 1,000k만 해도 은은하게 비쳐지는 정도가 될 거고요. 약간 좀 화사하게 빛이 난다면 3,000k 정도, 그 정도로 가게 되니까 그걸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요는 이 LED가 이렇게 포인트, 포인트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이제 영구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이제 하자가 났을 때 그거를 작가님 아니면 못 갈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게 조금 저는 좀 어려운 난제를 하지 않으셨나.
- 아, 그거는 이제 작가... 여기에 그
- 예, 세구가 있어서 아마 그쪽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 조건도 아, 예. 제가 보기에는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거나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 정도의 공간 뒀, LED가 설치가 된다면 그 정도 계산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조건부에 그런 어떤 것들을 좀 달아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지금 보시면 84페이지에 이제 그 교체구를 이렇게 세워서 하계끔 이렇게 하시긴 했는데 10개를 다 하시네요. 그러면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 작품이다 보니까 이거를 나사를 아무리 풀어놨다 하더라도 작품 자체를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좀 굉장히 민감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 그 하자 부분을 거기 따내고 다시 그 부분을 수선하는 날에 다시 닫아서 용접하고 마무리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 이게 이 작가가 이런 작품류를 좀 해본... 처음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돼... 이거는 작가가 계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으니까 좀 속도를 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채점 중 )

#### 4. 미추홀구 학익동 용현학익1블록(3단지)

10) <무한의 길(Infinite Road)>

11) <공간-자작나무>

위원장 예, 다음 10번. <무한의 길(Infinite Road)>과 11번 <공간-자작나무>에 대해서 사회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저 작품은 일단 설치 주변 환경을 보면 바닥이 지금 그림 상으로는 석재 그 판재로 좀 표현이 돼 있는데요. 실제로 이 전체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화석 아니면 보도블럭으로 아마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전체 이어지는 공간이나 이런 걸 다 봤을 때는 아마 재료는 그 인조화석 블럭 정도로 판단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석재 위에 표현되어 있는 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보도블록 위에 그냥 작품이 얹어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어떤 주변의 직설적인 어떤 이미지, 도시, 아파트의 어떤 이미지하고, 이런 어떤 곡선적인, 선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이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지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뭐, 어떤 약간의 놀이적, 휴식적 그런 어떤 공간도 제공하지 않을까 그런 열린 공간의 어떤 느낌도 꽤 좋고 조형성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저도

○○○ 네, 말씀하세요.

○○○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품 자체는 그 좌대도 없이 이렇게 보고 이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작품 색상이 저는 조금 너무 가벼워 보여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 약간 플라스틱 같은, 옛날에 저는 이걸 보는 순간에 예전에 이렇게 뭐 이렇게 사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 떼서 이렇게 색깔 칠해놓은 것 같은 약간 조금 가격에 비해서 조금 저렴해 보이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주변에 이제 뭔가 그린이나 이렇게 없기 때문에 저기 오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분진이라든지 이렇게 끼면 훨씬 더 조금 지저분해질 것 같은데 자주 그걸 이렇게 뭔가

세척을 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색깔을 조금 더 같은  
뭘 푸른색 쪽으로 한다고 해도 좀 무겁고, 약간 조금 중후한 세련된  
색깔을 하는 게 좀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예. 디자인 전공하시는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색채.

○○○ 네, 저도 색깔이 굉장히 좀 이 볼륨감이나 무게에 비해서 약간 가볍다  
는 생각이 들었고요. 차라리 좀 더 광이, 좀 이렇게 표면이 좀 더 매끈  
해서 좀 이렇게 광택이 돌면 조금 더 세련돼질 수도 있는 컬러인데 지  
금 여기서 톤이 그렇게 잡힌 건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떠 보이는 느낌.  
그래서 그게 전체 셰이프(Shape)를 더 이렇게 짝, 이렇게 쪼며지는 느  
낌이 좀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컬러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요. 옛날에 왜, 이런 색깔이 우리 가정집이나 이런 데 보면 담에  
있는 철책 같은 데 기본적으로 쓰는 페인팅 컬러라는 느낌이 좀 들어  
서 뭐랄까, 이런 볼륨감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압축  
된 느낌이 안 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컬러는 조금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든지 아니면 표면을 조금 더 광택 있게, 매끄럽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좀 가시면 어떨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아, 여기에 3D 도면 한번 보시면 이게 광택이 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거친 표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에 보면.

○○○ 그렇다면 이거는 여기 지금 보시면 95페이지에서는 조금 반사가 나오  
긴 하는데

○○○ 이게 색상이 옅은 색상이랑 반사, 그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권고사항이나 해서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예.

○○○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보도블록 위에 작품이 없어지면, 문제가 뭐냐

면 보도블록 그러니까 작품을 설치할 하고 보도블록을 깔든, 어쨌든 이제 보도블록을 제거하고 다시 하게 되면 이 작품 주변에는 다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향후에 이 주변에 침하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구조물, 이 작품을 놓기 위한 밑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그 구조물까지는 또 밑에 투심이 약해서 그 부분을 또 침하가 될 때도 구조물 바깥쪽에 있는 부분은 침하가 많이 일어나서 이게 향후에는 엄청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대 설치하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작품이 앉혀지는 구조물 위에는 판재가 뒀든 해서 설치가 돼 줘야 향후에 유지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만약에 좋은 느낌으로 하려고 하면 그런 말씀하신 대로 처리를 하고 대신에 이제 보도블록하고 같은 재질이나 이런 걸로 하면 괜찮은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 그렇다면 이제 그 좌대가 아닌, 저 밑에 좌대가 아닌 저 밑에 구조물이 넓게 이제 콘크리트가 쳐져야 되죠.

○○○ 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화강석을 비슷한 화강석 판석을 저 주변에, 그 주변을, 주변은 다른 데 보도블록이 바뀌어도 그 부분은 침범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환경을 조성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저런 방식으로 설치를 많이 하는데 매번 지반 침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사례들이 있나요? 저도 그레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제작 설치계획에 보면 이거, 이 작품 제작 설치가 비단 아니더라도 철근 콘크리트 기초가 이제 들어가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4,000에, 2,500에 300. 그러니까 300은 30cm를 얘기를 하는데, 60cm가 되면 더 좋기는 하는데 지하가 인공 지반이다, 뭐 이러면 또 콘크리트 그게 또 만만치 않으니까. ○○○님

말씀하신 대로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안전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제가 아까도 드렸는데 그런 어떤 기존의 작품이 설치되고 있는 어떤 한계성 그것보다 더 이렇게 더 견고하게 아니면 더 어떤 장기적인 작품의 생명력까지 보장하면서까지 하기에는 좀 아직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지금 현재 다 명기가 돼 있습니다. 이제 철근 콘크리트, 기초 콘크리트가 다 되고, 이게 베이스가. 예, 철판 베이스가 또 들어가고 그래서 설치가 되니까 그 부분은 이상이 없을 것 같고. 아까 이제 보도블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히려 아까 자꾸 좌대가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을 때 하고 이 작품은 또 반대가 되는 경우인데 이 작품은 그냥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제 다니는 어떤 같은 높이에 있어도 적절한 어떤 느낌이 아닐까, 따로 좌대가 들어갈 필요의 작품은,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 예. 그러면 그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 예.

○○○ 네. 회화전공 선생님께서 한 번 말씀 좀 해주시죠.

○○○ 저는 무난한 소재와 그림 방법도 무난하게 한 것 같고요. 애초에 이제 이렇게 뭐 \*\* 전혀 없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밀도가 높고 뭐 작가의 너무 이제 위탁하는 뭐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자작나무 소재 자체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작품 생각이라든가 이러한 아니면 의도라든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 이분이 오랫동안 사실계열 그림을 그려온 분이라 자기 본인 작품의 세계도 잘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 없습니다.

○○○ 네.

○○○ 저는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위에 조명이 건축 내부에 있는 조명인 것 같은데 작품만을 위한 별도 조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작품을 위한, 작품을 투사하는 조명이 아니고 일반 그냥 복도 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금 위에 설치되어 있는데 아마 조명하고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작품을 위한다면 별도의 조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작품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조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 지금 보면 조명이 이렇게 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조명이 들어져도 이게...

○○○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작가가 건축주한테 요구를 해서 그걸 해주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않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건축주한테 저희가 권고 사항을 하든지 그렇게 한다든지, 작가는 작품을 위해서 조명을,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 조명이 놓여 있는 걸 보면 지금 우리 지금 여기 회의실에 있는 조명하고 같은 내용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심의 했을 때는 작품을 비추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건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건축주한테 권고를 내려주든 아니면 작가 분한테 작품을 위한 별도 조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첨부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조금 바쁘시겠지만 채점하시는 중에 또 작품 설명을 들으셔도 괜찮겠죠?

( “네.” 라고 하는 위원 있음 )

( 채점 중 )

#### 4. 미추홀구 학익동 용현학익1블록(3단지)

##### 12) <도시산책자-별>

##### 13) <비행하는 도시>

위원장        네, 그럼 12번 <도시산책자-별>과 13번 <비행하는 도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저는 12번은 오히려 프레임이 없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약간 그 하늘 공간에 대한 이런 거라서 프레임이 없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2개가 좀 이렇게 좀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성을 조금 더 갖게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예, 저도 동의합니다.

○○○        아, 좋은 생각이시네요. 회화 전공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도 타당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기 승인을 얻으면 이걸 꼭 조건이나 권고에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작품이 더 돋보일 것 같아요. 이 <비행하는 도시>에 대한 의견은 없으신가요?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신선하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도 여기 나오는 영상이 두 군데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게 고장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런 약간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네, ○○○ 선생님.

○○○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흔히 볼 수 없는 평면이라서 되게 멋있다고 먼저 생각을 했고요. 모니터적인 부분은 그냥 모니터를 갈아 끼게끔 뒤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크게 문제

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게 알루미늄 패널들이 이렇게 레이어가 저서 이렇게 듣는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붙이는 건지가 정확하게 설명이 좀 안 돼 있습니다. 저도 이런 레이어 작업을 좀 해보니까 알루미늄이 가볍다고 느껴지는데 사실은 저게 합쳐지면 가벼운 것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뭐 나사를 통해서 돼 있는 것처럼 그림이 살짝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레이어와 레이어가 어떻게 붙어서 연결이 되는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나중에 떨어지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좀 위험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안정적, 안정성에 있어서는 조금 설명이 다시 필요할 것 같고. 작품적인 부분에서는 뭐.

○○○ 네. 이것도 추후에 그런 권고를 해서, 네. 이 작가가 아마 이 작업을, 이런 작업을 하는 작가라면 경험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 알루미늄 패널이 5T인데

○○○ 아, 5T.

○○○ 예, 5T인데 지금 하나, 둘, 셋... 총 4개 정도의 프레임이 있는데 이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 이 그림 상에서 좀 많아가지고요.

○○○ 네, 네, 네. 무게가 꽤 나가겠네요, 그러면. 뒷면은 두껍네.

○○○ 그러다 보니까 5T가 4개면 대부분이 앵커 체결 방법 보면 이게 흔한 대부분 회화작품, 그냥 간단한 작품에 대해서 이제 앵커로 나와 있는데 그정도, 아크릴 정도 무게면 이게 좀 탈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네, 적절한 지적이시네요. 이견 없으시면 계속 채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채 점 중 )

○○○ 다음 안건 14번, 15번 후에 잠시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 4. 미추홀구 학익동 용현학익1블록(3단지)

14) <언어채집-Gathering of meaning>

15) <크레아세이/새싹나무(Creascei/Sprout Tree)>

위원장 14번 <언어채집-Gathering of meaning> 와 <크레아세이/새싹나무(Creascei/Sprout Tree)>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자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새싹나무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네.

○○○ 우선 회화작품 14번 말씀드리면요. 저는 우선은 기존의 작품들이 큰 작품인데 대해서 이 작품은 소품들이 여러 작품으로 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안에 그려져 있는 그림도 여기에서 아크릴로 사용해서 그리고 또 높낮이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작가가 많이 신경 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 있습니다.

○○○ 저는 좀 산만해 보이는데 저 구성이 조금 바뀐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 저는 이게 작품 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저기는 하지만 이게 배열이라든가 이게 남아 있는 벽 자체의 스페이스의 그런 라인 선하고도 이렇게 좀 약간 합이 좀 맞아야지 이렇게 좀 깔끔하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딱 응집된 맛이 있을 텐데 이게 좀 약간 그냥 이렇게 어떤, 그런 나름의 규칙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배열되다 보니까 약간 좀 소품 같은 느낌



으로 전략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작품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밀도를 조금 한쪽 배치에 대한 것만 조금 한 번 더 감안을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배치 자체도 이제 리듬감이 좀 있어서 좀 몰렸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의미대로 막 해 놓으신 것 같아서 그게 작품을 더 이렇게 낮추게 되는 것 같은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배치 부분만 한 번 더 밀도 있게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더 작품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 예, 이것도 나중에 권고해서 배치를 통해서 좀 배치의 밀도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걸로 하면 되겠네요. <크레아세이/새싹나무 (Creascei/Sprout Tree)> 작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신가요?

○○○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수목 표현의 작품을 선호하는 편인데 나무 부분은 이제 스테인 3mm짜리를 강조를, 두드려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작가 관련한 그... 물론 이제 단조도 이제 의례품이 될 수도 있는데 작가가 이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쓴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그런 느낌하고 지금 나무를 인공나무가 대신한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나뭇잎 맥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건너편이 또 건너다보이고 하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재미있고 신선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네.

○○○ 작품성은 무난한 것 같고. 안전성도 구조 검토서 설치, 설치 내용을 보니까 크게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 네.

○○○ 그런데 그 작품의 평면도하고 베이스 플레이트의 그림하고 좀 상이한데, 이거 좀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네. 아니, 조금 더 위에. 아까 조금 전에 167. 네. 여기에 좀 표현 되어 있는 내용하고, 아까 그 169번에 베이스 플레이트가 뭔가 조금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플레이트 하나 안에 지금 이 모든 게 다 표현이 돼 있는데 실질적인 167페이지에 보면 플레이트가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진 그림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이스 판의 사이즈를 잘못 계산하시는 건지 아니면
- 이거는 그냥 평면도, 평면도 같은데요, 평면도.
- 평면도에...
- 예, 평면도이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평면도가 아닌 것 같고. 그거 그 사진으로는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
- 어쨌든 위에 지금 표현돼 있는 부분에 그 플레이트 내용하고 상이한 것 같으니까요. 평면도상에 맞게끔 플레이트 판이 제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그 위에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그 설치하다보면 조금씩 차이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정확하게 하는 게 무리가 있습니다. 그때, 그때... 이게 작가들 마음이라 좀, 마인드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이게 더 좋은 걸 같은데?’ 하면 또 그때 가서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 현장에 설치평가단은 결국은 이 그림을 보고, 이제 그림하고 이제 실재가 같이 되어 있냐고 할 텐데요. 이 그림들이 보면 항상 좀 이렇게 과대 표현돼 있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어차피 이 그림을 보고 작품을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심의했던 사항하고 이제 평가의 기준이 틀려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작가분이 최대한 본인이 표현을 했던 거는 무조건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중간 과정에 그걸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평가단은 이미 완성이 돼 있는 걸 보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과정에 대한 부분은 또. 그래서 심의

내용은 정확하게 준수를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여기 보시면 평면도 6,300에서 3,100이라고 나와 있는 건 이제 옆으로 벌어지는 나뭇잎의 길이까지 다 포함해서 한 것 같고요. 그 기둥만 놓이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밑에 기초 콘크리트가 5,000에 3,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다 들어가신다고 작가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놓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오해나 의견 차이가 있지 않으셨나 싶은 생각입니다.

○○○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부분은 지금 이 구조 안전 확인서에 보면 지금 조형물에 대한 거는 아까 평면도 그러니까 위에 상부에 나뭇잎들이 다 펼쳐진 것 같은 느낌까지 해서 조형물 면적을 잡아냈고, 평면도상에. 그리고 기초는 예, 여기 5,000에 3,000천에 예, 여기 이렇게 해서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 근데 좀 사이즈가 안 맞는 게 그림을 보면 베이스 판이 두 개가 얹혀지는데 각각 2,000에 2,000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2m, 2m 각각 두 개가 들어와서 4m가 들어가는 건데 기초 콘크리트는 5m가 이제 가로는 충분한데, 세로가 좀 부족하죠. 세로가 좀 기초 콘크리트 판을 조금 더 늘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유 폭을 각각 500, 500 줘가지고 5,000 만들었는데 그러면 3,000도 좀 키워줘야 되겠죠. 사이즈, 베이스 판하고 기초 콘크리트하고 사이즈가 좀 안 맞습니다.

○○○ 이거 채점하시고 쉬기로 했거든요. 네, 채점 마친신 선생님은 먼저 네.

( 채점 중 )

## 5. 서구 당하동 223-1번지 일원

16) <Invisible value of Sculpture>

17) <Figure Plants-물, 풍당>

위원장 16번 <Invisible value of Sculpture> 와 17번 <Figure Plants-물, 풍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자 네, 16번과 17번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네, ○○○ 선생님.

○○○ 네, 지금 작품 가액도 그렇고, 작품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1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변에 설치를 했는데 그림은 아주 좀 좋은 것 같아요. 작품 설치 이력도 인천에 최근에 없는 거 보니까 좀 젊은 작가가 아닌가 그냥 나름대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미뤄 짐작을 해 봤고요. 무난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일단 16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조명등이 지금 조명등은 매립 등인데 이게 뭔가 투사가 되는 듯이 이제 등을 노출을 시켜놨어요. 이거는 만약에 제품을 비출 등이라고 그러면 등 재료가 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잔디밭 내의 매립 등은 전기가 아주 빠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광원이 이렇게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강조할 수 있는 투사등이 설치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매립 등으로 설치한 거는 좀 잘못 표현이 돼 있고, 잘못 표현돼 있는 거를 그림에서 일부러 이렇게 노출을 시키는 것처럼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그림 상으로 봤을 때도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그리고 17번 작품은 이 설치 위치가 이게 좀 너무 좀 썩맞는 게 이게 설치 위치가 지금 생태연못이에요. 이 단지 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인위적인 분수시설이나 이런 걸 지양하고 생태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서식 공간으로 하기 위한 생태연못이 있다 보니까 이전 자연 형에다가 밑에 이제 자갈을 깔거나 뭐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인공 구조물이 없는 내용인데 거기에 지금 협의가 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작품하고 생태연못은 뭔가 좀 너무 언밸런스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지 전체에 대한 조경 계획도 나름 작품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서로 배려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그거에 그 조명 위치가 그 작품 밑으로 하나 설치되고 양 옆으로 3개만 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명이 너무 산만하게 이쪽저쪽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거 같아서 조명을 작품 밑으로 하나 집어넣으면 훨씬 더 그 입체감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명을 작품 중심 쪽으로 끌어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 예, 예. 그리고 양옆으로만 해도 충분히 그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이 작품에 판재 두께나 이런 게 지금 안 나와서 혹시 안전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 날카로운 부분이 너무 많고 꼭짓점이 또 많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표현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아마 좀 권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3D 상에서 표현을 아주 썩 그렇게 잘 하시는 분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엣지를 살짝 그 라운드를 주면 위험성은 덜할 것 같아요. 근데 3D 도면상에서는 날카롭게 그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권고 사항으로 넣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기타 의견 없으신지요?

( “네.” 라고 하는 위원 있음 )

( 채점 중 )

○○○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이제 약간 수평으로 이게 볼륨이 이렇게 연결되고 수평으로 가는데 살짝 이렇게 위로 좀 각도라든가 이런 걸 조정을 하면 좀 더 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좀 있긴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서 기 마이크 좀 눌러주시겠습니까?

○○○ 아까 그 팽이 모양처럼 되어 있는 그... 네, 네,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약간 2개... 이게, 이게 평면도가 이거 하고 그다음에 또 13페이지 거 하고는 또 각도가 다르네요. 이게 약간 좀 임의로, 막 3D를 임의로 그냥 막 이렇게 잡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한 말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때그때 위치가 좀 달라져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이거하고 13페이지 하고 구조 자체가 틀려요, 높이의 라인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최종 봐야 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은 그냥 접고요. 저는 그 대신 그 2번 작품 같은 경우에 이게 수변 위로 올라가는데 색깔이 너무 녹색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때 타고 물기 하고 그러면은 이게 좀 약간 더 칙칙하게 묻혀 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컬러 톤이 좀 화사하게 수변 하고는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컬러 톤을 한번 조금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이렇기는 하지만 이게 조금 때 타고 물길 올라가고, 막 바라고 이러면 더 칙칙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눈에 안 들어올 것 같고, 주변에 나무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컬러 톤을 좀 화사하게 가면 훨씬 더 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톤은 한 번쯤 더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 예. 이 작품도 채점 결과 후에 컬러 톤에 대한 의견을 권고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작품에서는 조명이 설치가 될 수가 없… 아니, 조명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조명이 원통처럼 올라와야 됩니다. 아니, 저 작품 말고요. 네. 이거는 바닥 재질이 볼때 자갈이 깔려져 있어요. 그러면 저거는 매립 등인데 매립등하고 자갈 높이하고 맞지를 안쥌. 그러면 자갈을 싸서 올린다든가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바닥 깊이 들어가면 물 위로 투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이 지금 이게 아마 그냥 일반 분수 시설이다라고 하면 분수시설로 좀 이해를 하고 싶으면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합니다.
- 지금 색칠된 거 보면 다 색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우레탄이거든요. 우레탄 도장이면, 우레탄 도장도 색깔이 뭐, 한 100가지, 200가지 만들 수가 있는데 좀 다양하게 프리드로잉 형태의 색감을 좀 넣으면 더 이렇게 다른 느낌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색종이 잘라서 올려놓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색채를 좀 자유롭게 써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게 아마도 이제 수변이고 그린 녹지, 이런 환경을 하다 보니까 그냥 녹색 톤으로 가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화사해도 더 분위기는 살 것 같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
- 두 분 선생님 의견이 일치하시는 걸로.
- 네.
- 17번은 작가가 2명이네요.
- 서 기 2명입니다.
- 그러면 지금 채점표 다 완성하셨나요?

( “네.” 라고 하는 위원 있음 )

## 6. 계양구 효성동 24-15

18) <Hue>

19) <Hue>

위원장 18번, 19번은 한 장소에 설치되는 작업입니다. 18번, 19번 <Hue>에 대해서 사회자 선생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사회자 예, 18번과 19번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두 작품은 가격도 1,500만 원, 1,500만 원 뭐 가격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아서 통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네.” 라고 하는 위원 있음 )

○○○ 미니멀한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입체감이나 이걸 볼 때 일루전이 있어요.

( 채점 중 )

## 7. 서구 당하동 589번지 일원(AB3-2BL)

20) <연-바라보다>

21) <상상의 숲-까치호랑이>



- 위원장 다음 21번, 20번 한 장소에 설치된 작품입니다. 20번 <연-바라보다>와 21번 <상상의 숲-까치호랑이>에 대해서 사회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20번과 21번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20번, 저기... 예, 예. 저기 이렇게 위에 높이는 수직으로 내려왔잖아요. 그게 약간 하나는 뒤쪽으로 오고, 하나는 앞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오히려 약간 그 움직이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너무 기계적으로, 수직으로 반듯이 서는 느낌이 들어요. 조금만 약간 틀어져도 훨씬 다른 울동감 같은 게 생길 것 같습니다.
- 저도 한 마디...
- 네, 네, 말씀해 주세요.
- 참, 이런 말씀드리기 참, 저는 곤란한데요. 20번 같은 경우에는 감히 또 제가 이렇게 또 단점만 부각시켜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건지, 이제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 예, 사실...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세요.
- (웃음) 이제 좀 이런 조형 조각 건축 조각은 조금 지양, 지향이 아니라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미술이나 예술 쪽에 조금 조예가 없는 사람들도 이제 저런 작품들을 보면 지나가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한 마디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이렇게 사는 곳에 이제 돈을 들여서 이제 설치를 한 작품인데. 저는 저게 그리고 예술작품이라기보다는 꼭 어떤 인상이나면 그냥 저 건물들을 한 건설사에서 뭔가 이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뭔가 제공한 볼거리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듭니다. 조금 더 예술적으로 좀 더 공을 들인 작품이 더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 그리고 두 작품이 다 지금 설치 장소가 다 평면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평면이 아니고 전부 이렇게 언덕 위를 조성하는, 마운딩이 조성된 그 위에다가 지금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지에 대한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대한 검토가 없이 그냥, 그냥 편한 장소에다 그냥 뒀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덕 위에 혼자 생뚱맞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두 작품 다 그렇습니다. 그림이랑 모든 표현들은 다 평지에 지금 설치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좀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 작품을 되게 과하게 좀, 과장되게 표현이 좀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림에서 보면 엄청 큰 사이즈로 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

이렇게 마운드 위에다 작품을 설치하면 안 되나요?

○○○

봉분 위에다, 우리가 묘지 위에다가 뭐가 하나 올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고 이제 이 작품이, 그러니까 작품을 설치할 하고자 했던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차피 지금 평지 위에 그리고 지금 호랑이가 앉아 있는 모습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작품도 역시 다 평지에다 지금 설치한 걸로 아마 작가님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마운드 위에다 하게 되면 기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노출이 될 수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저쨌든 지금 부지에 대한 그건 계획이 없이 지금 작품을 앉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매번 작품을 대할 때마다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을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작품을 앉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고요. 어차피 지금 저희가 심의를 할 때는 조정보다는 작품이 더 강조가 됐으면 하는 게 지금 또 생각이고. 작품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이 보조를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협업이 안 되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심의를 끝내고 이제 입주하신 분들 내지는 나중에

평가단이 구성된 그분들이 와서 보면 이 지금 심의한 내용하고 전혀 틀려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또 작가 분들이 가서 또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 권고 사항으로 건축주한테 ‘이 작품을 위해서 모든 주변 환경이 다 움직이게끔 해줘라.’ 라고 권고를 해준다면 큰 힘을 발휘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잡기 위해서라도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앞으로는 우리 작가분들이 좀 강하게 어필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되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 저는, 저는 사실 이 작품, 되게 재미있게 봤거든요, 개인적인 취향에서는. 저는 약간 스토리가 있고, 저는 스토리를 좀 해학적으로 풀어낸 것 같다라는 지점에서는 저는 사실 두 작품 다 되게 재밌게 봤고요. ○○  
○ 선생님 말씀처럼 약간 좀 3D상에서 과하게 표현된 부분들이 좀 있더라는 부분도 상당히 동의하는 바고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사실 저는 여기서 봤던 게 사실 조명적인 부분에서 조금 의외성이 들었는데요. 호랑이 말고 위에 저 백조였나요?

○○○ 소나무?

○○○ <연-바라보다>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 그 태양광, 그 지중등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게 이제 고장도 많이 나고, 빛도 저렇게 많이 안 나는데 저런 부분이 조금 과장된 것 같고 조명에서 조금 더 과장된 부분은 밑에 호랑이, 까치 호랑이. 근데 안에 이제 LED를 넣으신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LED가 그렇게 발광이 세지가 않은데요. 여기 상에서는 좀 너무 세게 표현된 것 같아서 오히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어떤 부지에 대한 거랑 조명에 대한 부분만 조금 보완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제 생각을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 저도 그 두 작품 다 사실이 이게 실제 작품이, 실제 작품보다 더 3D가

더 과하게 잘 표현되면 더 좋은데 사실은 이 3D 되는 것보다 실제 작업을 하면은 이거보다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이 두 작품과 3D 한 걸 보면 다른 어떤 작품들보다 표현력은 상당히 잘 표현되어진 것 같아요. 이것도 호랑이도 그렇고 조금 앞에 것은 사실 조금 과하게 표현은 된 것 같긴 하지만 나름의 어떤 고민한 흔적들은 보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다들. 찬반양론이 있지만 두 위원 전부 다 의미 있고 좋은 의견이라고 받아드리겠습니다.

( 채점 중 )

## 8. 부평구 부평동 738-43외 1필지

### 22) <염원>

### 23) <자연의 소리-ECHO23B01>

위원장 다음 작품 22번, 23번 역시 한 장소에 설치 될 작품입니다. 22번 <염원>과 23번 <자연의 소리-ECHO23B01>에 대해서 사회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자 22번과 23번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저는 22번 <염원> 같은 경우에 위치가 그 7페이지 보시면 너무, 건축물하고 너무 붙어 있어요, 이게. 이게 참, 뭐라고 그러지, 작품도 안 살고 약간 좀 불안요소를 좀 유발하는 그런 위치 선정인 것 같아서 이거를, 조형물을 이렇게 건축물에 가까이 붙여서 하는 경우는 저는 사실 처음 봤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다른... 높이도 거의 10m 정도 되면 굉장히 높은 건데 이게 좀 불안한 느낌이 배제를 할 수가 없거든

요. 위치 선정은 좀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도면상에 다른 위치가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

○○○ 가능하지가 않아요.

○○○ 그래요?

○○○ 그나마 여기가 제일 넓은 데예요.

○○○ 그나마 제일 넓은 공간?

○○○ 예.

○○○ 그러면 차라리 그 조형물의 사이즈를 좀 줄이든지 그런 식으로 가셔야  
지, 높이는 일반 조형물만큼 이렇게 키우시고 그렇게 붙여서 한다는  
건,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 그러니까 아마 이게 업무 시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동주택보다는  
미술장식품이 법적 금액이 많이 잡히고, 많이 잡힌 내용을 심의에서  
어떻게든 통과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좀 그 균형에 맞지 않게 지금 사  
이즈가 엄청 커진 것 같은데요.

○○○ 그러면 이 작품하고 이 건축물하고는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안을 제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저는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 일단 여기 이 장소 자체가 워낙 협소해요.

○○○ 네.

○○○ 이제 아마 작가가 거기에 맞춰서 작품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 이걸 볼륨을 안 하고 높이로만 채운 것 같은데요.

○○○ 예, 그런데 이제 볼륨을 갖다가 하기에는 협소하고 저도 이제 이 작품  
을 갖다가 좀 가격이 워낙 세니까 눈여겨봤어요. 근데 이제 이게 공간  
이 많이 뚫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볼 때는 그렇게 위압감이 느

껴지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이걸 갖다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풀 수 있을까도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다음에는 이 가격을 갖다가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 금액에 작품을 맞추는 거나

○○○ 아, 그거는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금, 지금 이 공간과 공간에 이렇게 맞추는 공간에 어차피 작품을 갖다가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공간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럼 뭐, 어떤 작가가 해도 이게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 이게 지금, 이게 놓여져 있는 위치가 보면 약간 그 기둥 사이에 길 있는 부분에 바로 이게 앞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더더욱 차라리 이게 그냥 벽면 쪽이나 이렇게 앞부분에 세우면 괜찮은데 사람이 다니는 그 길 가운데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위치상으로도 조닝선 자체도 잘 안 나오는 건데 왜 이렇게 설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작가가 아마도 여기 현장이나 이런 거를 한번 보셨다고 그러면 자기 작품이 이게 적은 가치의 작품도 아닌데 이런 데다 이렇게 던지듯이 놓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이게 그냥 한쪽 막힌 벽에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차라리 괜찮은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 그 가운데 부분에 넣었던 말이에요. 이거는 저는 조금 정말 아니라고 봐요.

○○○ 건물 투시도 상에 보면 동과 동 사이에 옥상에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여러 개 배치를 해서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하나의 작품에다가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조금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 거기 말고는 대안이 옥상밖에 없나요?

- 거의 바닥에는 장소가 거의 없어 보여서요.
- 옥상이라고 해도 대략 한 4층 높이의 옥상이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오히려 밑에는 사업시설이고 위에는 이제 뭐 오피스텔 같은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충분히 동선들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 음, 옥상이 돼야 된다?
- 이게 조형물에 가장 좋은 위치 포인트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니는 걸어 다니는 시야각에서 보여지는 높이 그 공간이 넓어서 멀리 떨어져서 보면 이제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시야각이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조형물 앞에 휴게 공간이 있어요. 휴게 공간,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 조형물 보려면 목을 완전히 뒤로 꺾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보는 시야각에서 인체 공학적으로 고개를 본다고 그러면 아마 조형물에 거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눈에 안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밑에 하단의 기초대 부분도 굉장히 높아서 사람들이 앉으면 거의 그 대 바로 위가 이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정말 뭐랄까... 조형물로서의 그... 정말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방법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개로 이제 낮은 거를 갖다가 밑에 필로티 있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돌아가면서 조형물을 이렇게 좀 놓아서 어떤 이렇게 라인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데 굳이 이거를 이 과한 조형물, 이 정도의 조형물이 보여진다고 그러면 사방이 정말 한 30m, 20m 정도의 넓이 가운데 그런데 들어가야 될 조형물인데 한쪽 구석에 이렇게 처박아 놓듯이 이렇게 넣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작가님이 이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현장을 가보셨을까. 그렇다면 제 작품을 이렇게 놓고 싶진 않을 것 같은데.

○○○ 그 ○○인가요? 움직이는 거 있죠?

○○○ 예.

○○○ 그게 한 10m 이상 넘죠? 그 작품도 어찌 보면. 근데 그 작품이 ‘공간성, 공간이 어우러지지 않다.’ 이런 말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저도 동의는 하지만 완전히 이렇다라고 하기에는, 공간에 어떻게 어우러질지는 사실은 이 공간이 협소해서 그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예는 그렇게 들어드린 거고요. 그 ○○도 그 공간에, 작은 공간에 놓여져 있는데 그렇게 협소하다는 생각은 갖지는 않는다는 생각, 저는 좀 그런 거, 공간성에 대해서는 좀 다른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 근데 ○○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시야는 트여져 있지 않나요?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 보여지는 각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 이 작품 앞쪽으로도 다른 건물들이 있거나 그래서 그 시야확보가 전혀 안 되나요? 주변 그 그림이 없나요?

○○○ 전면부에는요, 도로도 존재하고 건너편에 잔디밭 건물 또 이렇게...

○○○ 그 앞에는 왕복 2차선 작은 도로로 지금 괜히

○○○ 2차선에 작은 도로가

○○○ 5m 도로가 있어서 차가 다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진에서도 보면 도로, 2차선 도로가 있어서.

○○○ \*\*에서 보시면 바로 앞에 건물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사회자 예.

○○○ 그러면 건물 있고, 그 앞에 주차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 그 ○○아파트가 있습니다, 맞은편에.

○○○ 이게 두산위브예요?



- 아니요, 지금 표현돼 있는 주차장이 있고, 그 맞은편에 지금 작품 카메라 뷰라고 쓰여 있는 거기가 이제 ○○ 아파트로 지금 도면이 지금 표현 돼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아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 간, 도로 간 뭐 왕복 2차선이 있을 거고요. 그 밑에 지금 작품이 놓여져 있는 구간은 또 성큰이라서 계단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계단 표현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공간은 더 협소하게 표현이 될 거예요.
- 조합 작품 자체는 제가 보기엔 괜찮은 거 같은데. 똑같은 게 반복돼서 적층 돼서 올라가는 게.
-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게, 예.
- 예. ○○ 같기도 하고, 그래서.
- 위치를 한번 조금 더, 한 번 더 찾아보는 거를 한 번 권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뭐, 지금 봤을 때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오른쪽으로 봤을 때 약간 긴... 맨 오른쪽에 긴 그, 저기 녹지 공간 같은 게 있는데 그런데 들어가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 조정하고 건축 선생님들은 어떻게 더 좋은 의견 내주실 수 있으세요?
- 여기는 거의 그냥 법적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조정 면적이다 보니까 사람이 이용하는 데는, 이용하지 않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쪽은 위치적으로는 들어내야죠.
- 그럼 작품을 좀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 아니, 지금 말씀하신 우측 주차장에 있는 쪽, 부분으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지금 더 작품을 의식적으로 그냥 방치하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 조건부나 권고로 장소 확보,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 네. 줄이기에는 좀 아까운 작업이긴 한데, 제 느낌은, 제 생각에는.

○○○ 진짜 장소가 없기는 없어요.

○○○ 채점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기로 할까요?

( “네.” 라고 하는 위원 있음 )

( 채점 중 )

○○○ 그다음 <자연의 소리-ECHO23B01>, 저 작품 디테일을 좀 더 봤으면 좋겠네요. 이게 영화 스크린처럼 살짝 곡면인가요? 그런가 보네요.

( “네.” 라고 하는 위원 있음 )

○○○ 가운데 거는 볼록이고, 좌우가 오목이구나.

○○○ 그러네요.

○○○ 아이, 이거 뭐, 심의 중에 죄송한데 아까 그 전 작품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시 좀 말씀드려보면 9페이지, 한번 잠깐, 죄송한데 잠깐 좀.

서 기 9페이지요?

○○○ 다들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9페이지, 보시면 지금 아마 이 작가분이 공간은 주어지고 그 공간 내에서 이 작품을 넣으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폭이 지금 상당히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옆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 그 공간하고 그 앞에 있는 녹지를 좀 조정을 한다면 이 공간이, 공간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은 작가분이 아마 손을 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공간에다가 아마 설치를 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다면 새로운 위치를 찾는 것도 권고를 하지만 그 녹지도 한번 흔들어서, 녹지도 흔들어서 그 공간을 작품이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을 해라라는 권고사항을 준다고 하면 그렇다면 공간이 좀 더

더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건물 쪽 붙는 것보다는 도로 쪽으로 더 붙고요. 현재 나무가 있는 그 위치를 좀 조정하고 녹지 면적으로 조정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쪽으로 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는데요.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네, 이게 통과가 되면 그런 제안,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겠네요.

○○○ 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되는 게 지금 이렇게 형식적인 복지가 만들어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건물에 오히려 이제 지금 이제 나무들이 식재가 돼 있기는 한데 이게 상당히 그냥 녹지를 안 그래도 어저지로 만들려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공간에 작품이 놓이게 되면... 그런데 지금 작품 규모가 워낙 커요, 10m가 넘는 작품이라. 어차피 그냥 모든 방향에서 작품을 감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 같고. 그래도 이제 전면부, 도입... 이제 건물에 진입할 때 그리고 좌우측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감상 공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그리고 나무 있는 위치로 조금 빼면 더 좋아 보일 것 같긴 하네요. 웅색해 보이지 않고 훨씬.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작가는 아니지만. <자연의 소리-ECHO23B01>에 대해서도 뭐,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채점으로 들어가지죠.

( 채점 중 )

## 9. 송도동 396-7

### 24) <화이트웨이브>

위원장 다음 작품 24번 <화이트웨이브>에 대해서 사회자 선생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사회자 예, 24번 <화이트웨이브>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제가 지난번 심의에 들어와서 이제 작품성 이런 거, 심의위원 분들이 다 확인하시고 작품가액, 규모 다 확인을 하시고 적합판정을 다 하셨는데 위치가 좀 이렇게 길을 막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사항이 좀 나와서 이게 아마 지금 위치가 수정된 걸로 해서 재심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 적합, 부적합만 동그라미...

사회자 예, 그 적합, 부적합만 동그라미표 하시면 됩니다.

( 채점 중 )

## 10. 서구 경서동 124-74번지 일원

### 25) <나빌레라-Navillera>

위원장 25번부터 27번까지는 한 장소에 설치될 작품입니다. 심의는 1건과 2건으로 나뉘어서 25건을 먼저 하고 26, 27번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5번 <나빌레라-Navillera>에 대해서 사회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25번부터 27번까지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지금 이게 몇 번째 재심의 인가요?

사회자 지금 2022년도에 한 번 신청됐다가 부결이 돼서 다른 작품으로 변경해서 들어온 사안입니다.

○○○ 그럼 두 번째 지금 심의인가요?

사회자 예, 그래서 재심의로 표현되지만 실질적으로 작품은 신규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자꾸 아까 말씀드린 파공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파공되어지는 어떤 이미지들이 그런 작품, 작가 구상하는데, 구상이 우선이고 그 후에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은 고민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공공 공간이라는 어떤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거슬리기는 하네요.

○○○ 지금 이게 지금… 작품에 대한, 작품을… 판지를 갖다 뚫겠다는 건지, 주물을 뜨겠다는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안 돼 있네요.

○○○ 단조 아닐까요?

○○○ 단조인지… 단조? 단조라고요?

○○○ 파공형이니까 단조를…

○○○ 이게 스테인리스 스틸인데, 스테인리스 스틸인데 사실 단조가 좀…

○○○ 아니, 단조를 할 수가 있는데

○○○ 스테인리스 스틸도 단조를 해요.

○○○ 그러니까 또 어렵잖아요.

○○○ 단조를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거 옆에서 봤을 때는 두께가 꽤 돼 보이거든요. 단조일 것 같지는 않고. 여하튼 이런, 이런 재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너무 안 해놨어요. 예를 들어 이걸 갖다가 판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판이 두께가 몇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이네요.

○○○ 조각 전공자가 아닌가, 거기 어떤 프로필이 있잖아요. 그… 보세요. 저도 그걸 자세히 보지 못해서.

○○○ 이게 부식판… 부식판이라고…

○○○ 판이요?

○○○ 아니요. 지금...

○○○ 작품 재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면 곤란해요.

○○○ 예.

○○○ 작가 경력서에도 미술학과를 졸업하신 건 맞고, 미술학 학사이신데 전공이 정확하게 뭔지, 그런 거는 전혀 모르긴 하네요.

○○○ 예.

○○○ 작가가 와 있지는 않나요?

서 기 대리인이 와 있습니다.

○○○ 조각 전공자는 맞아요?

서 기 대리인 한 번 모실까요?

○○○ 네?

사회자 밖에 이제 대리인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 아

사회자 필요하시면 저 대리인, 와서 잠깐 답변하라고 해도 되고요.

○○○ 대리인이 답변이 될까요?

서 기 25, 26, 27 다 한 장소인데 세 작가 대리인 아무도 참석 안 하셨습니다.

○○○ 아, 난감한데.

○○○ 지금 보니까 여기 다음 작품 작가도, 꼭 전공을 갖다 조각을 할 필요는 없지만, 도예하시는 분이고.

○○○ 27번 말씀... 26번 작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 그 다음 작품, 네. 26번도 그렇고. (한숨) 그러면...

○○○ 이게 어디 단조라고 나와 있나요?

○○○ 아니요, 그런 거 안 나와 있어요. 전혀 작품을 제작한 거에 대한 그런... 재료도 정확하게, 그냥 스테인 리스라고만 쓰여 있고, 보통은 뭐,

304니 뭐니 이런 걸 쓰잖아요.

○○○ 그런 스테인리스, 서스 304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또 그걸 갖다가, 판을 갖다가 해서 조립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파이프로 할 것 같진 않은데,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 예, 그렇군요.

○○○ 도장 방법은 나와 있는데, 작품 제작 방법이. ○○○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 채점 결과가 나와 봐야죠.

○○○ 아, 지금 채점할까요?

○○○ 아, 그럼요.

( 채점 중 )

○○○ 마지막으로, 마지막 부분에 설치 건물 사용계획서를 보면 모형 제작자가 있어요. 주물로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 저걸 주물로 할 수, 하기가...

○○○ 이걸 주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 구조적으로는 주물로 하기가 쉽지 않지.

○○○ 부분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 쪼개서, 쪼개서 그런 식으로.

○○○ 예, 안에를 다 통째로 채워 넣을 수도 없고, 주물을.

○○○ 그러니까 이분이 작품 자체를 제작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세요.

## 10. 서구 경서동 124-74번지 일원

### 26) <유기적 공간>

### 27) <바람의 흔적>

위원장 이어서 26번 <유기적 공간>과 27번 <바람의 흔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26번과 27번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파이프를 꼬아놓은 것 같은 어떤 형상인데... 어째 조형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많이 억지로 만든 듯 한 너무 그런... 그런 이미지가 강하네요. 오히려 전 작품보다 더...

○○○ 그런데 위에가 뚫려 있는 건가요?

○○○ 영성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 뚫려있어요.

○○○ 뚫려있으면 물이 안 빠지니까 물이 고여서 썩은 냄새나기 딱 좋은 상황이거든요.

○○○ 음, 그렇겠네요.

○○○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 내부의 도장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파이프, 파이프끼리 전부 떼서, 용접을 해서 이렇게 붙이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도장을 한 상황에서 용접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용접이 끝난 상황에서 안에다가 도장을 하겠다는 건지. 이게 설치가 되는 건지. 그림 상으로는 표현이 됐지만. 가능한가요?

○○○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정말 조형성 부족한 작품 같습니다.

○○○ <바람의 흔적> 작품에 대해서 의견 또 피력해 주십시오.

○○○ 여기는 설치 위치하고 그림하고가 지금 틀려서. 설치 위치는 높게 단다고 그런 것 같은데 아, 아니네요. 아, 무슨 몰하고 위치를 제가 좀



거꾸로 하나 지금 여기도 지금 조명 자체가 보시면 물 수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물이 빠졌을 때는 혼자 이제 원통 식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형태죠. 그리고 여기도 연못은 자연 형태 때문에 아마 바닥 마감은 자갈이 깔릴 것 같아요. 자갈이 깔린 상황에서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뭔가 지금 물 수위에다가 맞춰놨는데 그게 조금 조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저는 하나 좀 여쭙보고 싶어요. 작품이 이제 들어오다 보면 사실 요즘은 이제 정보 공유가 너무 잘 돼갖고 외국 작가랑 되게 유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유사한 걸 갖다가 어디까지 인정해 줘야 되는지, 그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솔직히 이 27번 작품은 제가 사전심의하고 난 다음에 다른 데서, 물론 이제 원이 1개였지만 이 형식이 되게 비슷한 걸 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원래 저작권에는 조금만 틀려도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디까지 이해를 해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 일단 디자인에서는 60% 이상 같으면 저작권에서 인정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평가를 대부분은 해요. 근데 이제 발상이라든가 이런 게 논리적으로 있을 때 유사한 형태가 이제 반복돼서 피비우스 띠처럼 계속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느낌이 60% 이상 비슷하다고 하면 무조건 그거는 위배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보거든요.

○○○ 애매하네요. (웃음)

○○○ 근데 그 기준이 LH공사나 그런 데서 계속 요즘에 그런 시비거리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그것이 모작인지, 위작인지 그런 식으로 결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뭐 완전히 누구 한 사람이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어떤 의견 조율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이런 구조로 해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

지금 문제는 25, 26, 27 이 다 재심의이긴 한데 사실...

예, 제가 알기에는 인천 작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걸 다 검토를 해봐도 세 가지가 다 제작 기법에 대한 거나, 재료에 대한 지금 27번 <바람의 흔적>은 원형의 구조물을 만드는데 이걸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일정한 두께를 가진 철사를 계속 엮어서 용접을 해가지고 작업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게 전혀 안 가겠죠. ‘이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그러는데 이건 뭐, 다음에, 다음 문제라 하더라도 아, 참, 그리고 이렇게 제작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게 뭐 모르고 제작을 하다 보면 당연한 것이 하중이나 이런 거, 계산은 당연히 안 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럼 안전성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렇게 구조를 열기설기 계속 엮었다고 해서 저렇게 강한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참, 이게 세 개가 다 공통적으로 그런 언급이 없으니까 재료나 어떤 기법에 대한 언급이 워낙 없다보니까 이게 재심의고...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 컴퓨터상에서만 가지고 이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자기가 작가의 손으로 작게라도 뭔가를 만들어서 그것이 여기에 반영이 된다면지 하면 이런 어떤 착오들은 없어지거나, 그래도 줄어들 텐데 그냥 컴퓨터 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가들의 말을 몇 마디로 이렇게 표현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

예, 매의 눈으로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평가 채점표에

기입해 주시고요.

( 채점 중 )

## 11. 서구 불로동 불로지구 9블록 1,2로트

28) <Totem for Wish>

29) <Wellcomes>

위원장        다음 28번, 29번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번 <Totem for Wish> 29번 <Wellcomes>에 대해 사회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자        예, 28번과 29번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21년도에 부결됐던 건가요?

사회자        작년 11차입니다. 22년 11월 달.

○○○        22년이죠?

사회자        예, 예.

○○○        재료가 폴리에스터였던 걸 갖다가 스테인리스로 다시 바꾼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먼저 번에 폴리에스터 수지였습니다 예.

○○○        예, FRP하고.

○○○        예, 기억하시는군요.

○○○        이게 작품 설치 위치는 전부 잔디밭 내리 녹지에 설치돼 있는데 작품 하부에는 원형으로 지금 포장에 지금 표시돼 있어요. 그런데 포장은 하지 않겠다는 걸로 지금 내용이 보여 지는데. 포장을 포함을 하는 건지 아니면 \*\* 다는 건지, 이 두 개 작품이 다 지금 같은 상황인데요.

( 채점 중 )

- 28번, 29번이 재심의인데 그 작가가, 한 작가라는 얘기인데 뭐 이렇게 작품이...
- 두 작가예요.
- 아, 두 작가예요?
- 예.
- 서브 작품이라는 거는 한 작가가 두 개 다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 두 작가가 둘...
- 두 작가가 두 작품을 공동
- 아, 공동으로 제작을 했다?
- 이게 더 조금 그런 게 위에 아예 솟대가 없었으면 그나마 미니멀한 느낌으로 갔을 텐데
- 아니, 여기 솟대... 예. 아니, 여기 솟대가 보이네요.
- 이걸 억지스럽게 이걸 집어넣은 것도 그렇고.
- 바닥에 조명을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조명을 넣는다고 해서 이 타공판에서 빛이 나와요? 궁금하네요.
- 이거 눈부셔서 어떻게 해?
- 높이가 6m나 되는데.
- 사실 그 위에 것도 요즘에 많이 여기 작업을 이런 형태로 작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위의 작품은 그나마 뭐 그렇다 하더라도 밑에는 <Wellcomes>은 개념 작업 좀, 아니면 아무튼 좀...
- 저는 28번 작품 보면 이제 형태적인 걸 떠나서 이제 안전성적인 거를 조금 여쭙보고 싶은데요.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맨 밑에 동그라미 있는 거랑 중간에 동그라미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아무리 스테인으로 해

서 용접으로 지지고 뭐, 가운데 심을 보강을 한다고 해서 혹시 안정성에 문제가 없을지는 조금 걱정은 되는 것 같아요.

○○○ 안전성은 문제가 없어요. 이게 스테인리스 용접이 됐을 경우에는 거의 사람이... 뭐, 크레인으로 밀면 부서지겠죠.

○○○ 안전성은 문제가 없는데 이거 지난번에 제가 심의 들어갔었거든요. 크게 달라진 게 별로 없어가지고. (웃음) 재료만 달라졌을 뿐이지, 형태가 바뀌었어도 크게 그렇게 뭐, 변화가 있어 보이지는 않네요.

○○○ 아니,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안전성이 훼손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이거는 지금 물리적으로 것보다 오히려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보면서, 보는 관람객이 좀 마음이 편해야 할 텐데 두 작품이 다 이제 한 작품은 이거 너무 무성의해 보이고 또 한 작품은 말 그대로 이걸 이렇게 구조적으로도, 시각적으로도 편해 보이지가 않는. 이걸 뭘,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체크를 한번 심의를 더 받아봐야지, 싶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개인적으로.

( 채점 중 )

사회자 지금 한 5분만 쉬겠습니다. 직원들이 좀 통계를, 집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 집계 중 )

## 집계결과 발표 및 조건부, 권고 논의

위원장        집계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가결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가결 번호, 안건 번호, 1번, 2번, 3번, 4번… 그냥 읽겠습니다.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8번이 가결되었습니다. 부결은 4건, 25, 26, 27, 29 입니다. 조건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조건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신 위원님들 모든 걸 취합한 결과 4번 <빛의 숲>. 4번 작품입니다. 네, 네. 이게 조금 옥상부 조형물보다, 옥상부 조형으로, 옥상부가 일반 조형물보다 높아서 가벼운 재질이라도 구조적 재확인이 필요한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 선생님께서 의견 주셨죠?

○○○        네, 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 차

○○○        이것만 확인해서.

○○○        가벼운 재질?

○○○        네, 네. 지금 여기 재질이 알루미늄… 아니, 저기 스테인리스 스틸 그 두께가 나와 있나요? 거기 아마 표기 되는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        두께는 없는 것 같습니다.

○○○        두께가 표기된 게 없어요. 스테인리스 작업 많이 하시는 선생님, ○○○ 선생님, 스테인 작업 많이 하시니까

○○○        네.

○○○        의견을 한번 좀, 참고하게.

○○○        그런데 그 무게가 너무 가벼워지면 두께가 너무 얇아지거나 그러면 제작하는 데 좀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하는 게 3T 정도 해요. 이 정도로 하면 별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거든요.

-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작품 제작과 시공 방법 4에 보면 뒷면에 0.6T, 스테인 용접으로 유리부착면 형성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거 아닐까요?
- 근데 제작 방법은 그렇게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게, 저분이 저런 작업들을 계속 해왔던 분이라 제작 방법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 도장을 막 붙여갖고 유리를 가운데다 넣고 이렇게 조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 저 사진까지 저렇게 첨부한 거 보면 저분이 작업을 저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라 작업과 연결시켜서 하는 거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 맞아요. 일단 저는 높이가 이게 최대 4m 80 정도 되거든요. 그 높이의 옥상의 이제 그런 풍속이나 이런 높이에 비해서 이게 너무 얇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한 번 더 확인해서 안정성을 확보해 달라는 의견이지 다른 거는 없어요.
- 아, 네.
- 그 앵커 볼트로 그거를 고정을 하면 건물에 어떤 부분이 망가지는 것이 저게 그렇게 그리고 바람을 타는 형태가 아니에요. 저게 환의 형태라 바람이 이렇게 흘러가는 구조가 그렇게 크게 바람의 어떤 영향이나 이거에 문제시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제가 좀 미숙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공공심의의 많이 들어가요. 공공심의에 들어갈 때는 구조상의 높이에 비해서 이 면적에 한 거를 어느 정도 좀 규정을 좀 강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작가님들께서 별 크게 문제가 안 되신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

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조각가 선생님들 모시기에 굳이 조건부 안 달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 안 달아도 될 것 같은데요.

○○○ 네.

○○○ 네, 그러시면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네,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Flame tree\_불꽃나무 01-2022>. 저 작품이 크기를 10% 정도 확대하되 좌대를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거의 전부 다 동의하시는지요?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

서 기 네, 알겠습니다. 이거 명문화 하겠습니다.

○○○ 네, 그러면.

서 기 조건부인거죠? 권고가 아니라?

○○○ 네, 조건부.

서 기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네, 네.

( “네.” 라고 하는 위원들 있음 )

서 기 다음 번호요.

○○○ 그다음에 8번.

서 기 8번? 네.



- 위원장 예. <생동하는 생명체...에너지IO-22-01>. 좌대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〇〇〇 저는 좌대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조경을 그려놓은 걸 보면 지금 일단 앞에 이렇게 나무를 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갈 염려도 없고 그 정도는... 뭐 낙엽이 쌓이고 이런 것보다 그냥 차라리 풀이 좀 올라가도 그게 더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 같거든요. 오히려 좌대를 놓으면 더 어색해 보일 것 같아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 〇〇〇 다른 선생님들 의견은 대충 다... 예.
- 〇〇〇 동의합니다. 오히려 좌대가...
- 〇〇〇 아, 예, 알겠습니다.
- 〇〇〇 방해할 것 같아요.
- 〇〇〇 근데 혹시 저게 만약에 경사로라고 한다고 하면 뒷부분이 많이 문힐 텐데 그거는 괜찮겠습니까?
- 〇〇〇 아마 경사가 이 시각적으로 저 잔디가 그렇게 엄청난 넓은 공간에 설치되는 게 아니라 거의 그 정도 레벨은 저 정도에서 맞출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뭐 정말 경사진 데에다가 저거 잔디가 깔리지는 않을 거거든요. 평지에 깔리면 여기서 보여지는 그 시각적인 게 그렇게 보여지는 거지, 아마도 그렇게 막 경사진 면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 〇〇〇 근데 현재 지금 그림 상에서도 경사인데, 그렇다면 그 저 작품의 중심축이 뒤로, 뒤로 이제 밀려갈 거 아니에요? 저게 근데 그림이랑 똑 같으면
- 〇〇〇 만약에 능선처럼 올라간다면 더 좋죠. 만약에 그게 경사가 아니고 능선처럼 만들어지면 작품이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 드니까 더 나을 수도 있죠.

위원장 그리고 또 한 하나의 의견이 이 작품, 8번 작품과 그다음에 나오는 작품, 9번 작품이 서로 위치상 스와프 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 이거는... 안 돼, 안 돼.

○○○ 예, 이것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그냥 조건 없이 통과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 아까 10번에 뭐, 좀 변화시키는 거 있지 않았나요? 10번에?

○○○ 아, 이 작품을 위한 조명이 필요하다는... 아, 10번 빠졌나요? 10번?

사회자 색상이 단순하다고 그래서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예, 예.

○○○ 그거는 권고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색의 변화를 줬으면 한다.’ 라고 해서 권고로 가도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 예, 저도 권고 정도로.

서 기 권고로 하면 될까요?

○○○ 네. 그런데 저기 가까이에서 클로즈업해서 보니까 작품 표면에 이쪽이 광택이 있어서

서 기 ‘변경할 것’ 이라고 해도 되나요?

○○○ 네. 작품 색상...

서 기 ‘색상 변경 권고’ 이렇게 할까요?

( “네.” 라고 하는 위원들 있음 )

○○○ 그냥 제안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서 기 ‘변경 제안’ 할까요, 그러면?

○○○

네.

○○○

생각이 있을 텐데 그걸 막 바꿔라, 뭐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네, 네, 네.

○○○

예, 이거는 작가가, 작가가 심의위원회 의견을 가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 “네.” 라고 하는 위원들 있음 )

○○○

네, 알겠습니다.

서 기

권고로 하겠습니다. 예, 11번으로 갈까요?

위원장

네, 11번 작품, 회화 작품입니다. 작품을 위한 별도의 조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예, 이런 조명을 단지 설치할 해봤는데 아예 별도로 따로 나와 있는 램프가 필요해요.

○○○

아, 그래요?

○○○

예.

○○○

음, 그러면 회화를 위한 별도의 조명 설치?

○○○

예.

서 기

이건 조건부입니까? 권고입니까?

○○○

조건부요.

○○○

네, 네.

○○○

다른 회화 작품에는 그 조명이 있었어요.

○○○

네.

○○○ 근데 여기 이 작품 없었나요?

○○○ 이 작품은 이런 등에서 빛만 조금 더 나오게 해놔었어요.

○○○ 이게 아까 설명에는 이런 조명이 아니라 약간 각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걸로 했는데

○○○ 네, 각도를 갖다가 조정을 할 수 있던데.

○○○ 다른 분들의 작품이랑 마찬가지로 보였어요.

○○○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 움직일 수 있는.

○○○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작품을 위한 조명이 설치될 경우’ 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 예, 예.

○○○ ‘작품을 위한 조명이 설치되었을 경우’ 권고로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서 기 권고로 가나요? 어떻게 할까요?

○○○ ‘별도 조명을 설치’ 라고 권고하면 됩니다.

○○○ 그렇죠.

○○○ 예, 그래요, 그래요.

○○○ 그러니까 별도 조명이 있을 경우 애는 뭐 문제없이 통과되는 거니까, 가결되는 거니까.

서 기 그러면은 이렇게 권고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 예.

서 기 다 동의하십니까?

( “네.” 라고 하는 위원 있음 )

서 기 다음 12번인가요? 이것도 아마 프레임 없애자는 게 있었는데.  
○○○ 프레임 없애고 이렇게 가까이  
서 기 안 보이게요?  
○○○ 네, 네.  
○○○ 저 작품을 프레임 없애고 이렇게 가까이 두는 거에 권고로.  
○○○ 네, 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권고죠?

( “네.” 라고 하는 위원 있음 )

○○○ 네, 두 작품의 프레임을 없애고 작품 간격을 가깝게.  
서 기 가까이? ‘배치’ 이렇게 할까요?

( “네.” 라고 하는 위원 있음 )

서 기 됐나요? 네.  
○○○ 네. 그럼 훨씬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서 기 다음은 몇 번인가요?  
서기 2 13번.  
위원장 <비행하는 도시> 이 알루미늄 판을 이렇게 레이어로 해놨는데 이거 연결 부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 설명을 제출할 수 있게.  
○○○ 네.  
서 기 제출할 수 있게요?  
○○○ 네, 네, 조건부예.  
서 기 조건부가 되겠네요?

○○○ 네.  
 서 기 알루미늄 레이어, 겹침…  
 ○○○ 조립, 조립.  
 서 기 조립?  
 ○○○ 조립에 대한…  
 서 기 레이어… 레이어 빼고요?  
 ○○○ 네, 네.  
 ○○○ 조립에 대한  
 서 기 상세도면?  
 ○○○ 상세도면.  
 서 기 설치도면?  
 ○○○ 네.  
 서 기 ‘상세설치도면 제출’ 이렇게 할까요?  
 ○○○ 네.  
 ○○○ 도면의 설명.  
 서 기 아, 도면의 설명이요?  
 ○○○ 네, 네.  
 서 기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 “네.” 라고 하는 위원 있음 )

서기 2 다음은 14번.  
 서 기 14번, 네.  
 ○○○ 네.  
 위원장 공간 배치가 무의미하니 배치의 밀도를 더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의

견이었습시다.

서 기 이견 조건부 일까요...

〇〇〇 이견 권고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〇〇〇 네, 권고... 네.

〇〇〇 권고? 네. 네, 권고로 그럼.

서 기 작품 배치 변경? 어떻게 할까요?

〇〇〇 네, 작품 배치의...

〇〇〇 네, 그렇게만 해주시면

〇〇〇 네, 네, 네. 이거는 저기가 없겠지.

서기 2 다음은 15번.

서 기 15번이요?

위원장 아, 15번. 기초 콘크리트 규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있었습시다.

〇〇〇 이것도 권고로 가도 되지 않을까요?

〇〇〇 그래요?

〇〇〇 작품을 자기가 설치하는데 좁게,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〇〇〇 예, 그냥 권고로 하면.

〇〇〇 네, 권고로. 네, 권고.

서 기 권고인가요? 그러면 기초

〇〇〇 콘크리트 규격 변경이라고.

서 기 규격 변경. 더 넓어져야 된다는 거죠?

( “네.” 라고 하는 위원들 있음 )

서 기 ‘확대 필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 규격 …

( “확대 필요.” 하는 위원들 있음 )

○○○ 네, 규격 확대.

서 기 이렇게 하면… 네, 네.

( “네.” 라고 하는 위원들 있음 )

서 기 다음 어떤 건가요?

서기 2 16번.

위원장 네, 16번. <Invisible value of Sculpture>는 마감부 저기, 면과 면이 붙는 부분이 저기 뽕족하니까 그 마감부에 라운드를 줘서 혹시 누가 부딪히거나 그럴 때 다치지 않게끔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걸 조건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권고로?

( “권고.” 하는 위원들 다수 있음 )

○○○ 권고로 해도 되겠죠?

( “네.” 라고 하는 위원들 있음 )

서 기 권고인가요?

○○○ 네.



서 기            뽀족한 마감 처리를

○○○            예, 부드럽게.

○○○            마감.

○○○            처리.

서 기            처리, 이렇게 할까요?

○○○            네.

○○○            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서기 2           17번.

서 기            17번이요? 네.

○○○            색깔.

○○○            컬러.

위원장           예, 17번 <Figure Plants-물, 풍당> 컬러가 단조로우니 이걸 좀 더 다채  
롭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서 기            이거는 권고일까요?

○○○            권고로 하세요.

○○○            권고로 가시죠.

○○○            네.

○○○            단조로운 색상을 지양하여 화사하고 다채로운 색채 처리 요망.

서 기            다채로운 색채 처리.

○○○            처리 요망.

서기 2           20번.

위원장           네. <연-바라보다> 아, 예. 이것은 위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어  
떤... 아까 ○○○ 선생님께서는 이 말씀을, 위치 조정 어떻게, 어떤 위

치 조정 하신다는 말씀이었는지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 아, 지금 저 마운드 위에 설치돼 있는 부분이니까 근처에는 어차피 넓은 공간들이 있으니까요. 작품 가결 할 때 위치를 조정해서 하는 게 어떨까, 조건부로. 새로운 위치로 하는 게 어떨까하는.

○○○ 다른 장소로 옮긴다는 말씀이세요?

○○○ 네, 네, 네.

○○○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들이신지?

○○○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결과를 보고 약간 놀라기도 했고. 사실 이렇게 가결을, 이렇게 점수로 해서 가격을 다 주셨으면 결과가 가결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런 식으로 무슨 권고니, 조건부니 이런 걸 이렇게 많이 달기가 사실 심의위원회 성격도 좀 참 모호해지고. 이게 지금 작품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결을 시켜놓고 작품을 바꿔라, 뭐 여기까지 가면 이제 그거는 이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조명 일부, 뭐 이런 것들이면 설치 위치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뭐라도 작품 자체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저는 놀란 게 일단 이렇게 부결률이 (헛웃음) 부결률이 너무 낮다라는 거. 아까 이제 여기서 회의할 때는, 회의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의견도 어느 정도 공유하고자 이제 회의를 하고 하는 건데 이렇게 제안을 해도 그런 게 뭐 이렇게... 물론 일부에 제안한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었어요. 이렇게 대화하고, 이제 회의니까.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제안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올 때 일단 좀 그렇긴 한데 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조건부니, 권고니 이런 걸 막 좀 달아서 심의위원회의 성격을 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애매한, 정체성도 좀 부족한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우려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 저도 동의합니다. 가급적 작가의 원래의 의도를 존중하는 게 좋죠, 당연히. 그런데 작품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작품을 심의위원회가 도와서 잘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그런 취지에서 이제 좀 작품을 건드리게 되는 거죠. 이제 또 아까 너무 가결률이 높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말하자면 점수에 의한 투표를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한 조그마한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어떤 시스템도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다 일장일단이 있고 또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아, 좋으신 의견이에요.

○○○ 예, 나쁜 의도로 단지...

○○○ 아니요, 저도...

○○○ 예, 나쁜 의도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시다.

○○○ 예, 저도 동의하고, 공감하고 그런 내용이니까.

서 기 20번,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 네?

서 기 20번,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 아, 위치 조정? 아, 아.

○○○ 아, 이거는 위치 조정으로 가는 게 맞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가결률과 부결률을 말씀하셨는데 작품에 대한 건 가결이지만 조건부 가결이라는 거죠, 그 부결이 아니고. 그 조건의 이유는 지금 작품이 설치될 위치나 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심의...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심의서류가 들어왔는데 이 심의서류가 앞뒤가 안 맞거나 환경, 조건, 내용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맞는다고 그러면 원래 심의 자체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검토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이제 따로 놀았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작품을 아까 어느 한 작품 식으로 그냥 공간에다가 욱여넣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심의에서 그나마 좀 완화를 하라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저 조건부로 달았을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작품이 기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작품의 위치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공감하시는 위원들이 얼마나 되시고 또 굳이 이거 왜 위치 조정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도 계실 걸로 압니다. 그러면 이 위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다른 위원들한테 설득을 시키셔야 될 텐데, 그러면 또 이게 시간이 많이 흐르겠죠? 이거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거수로 할까요?

○○○ 20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 까치... 두 작품,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시행사하고 작가하고 작품 위치를 아마 분명히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올라온 건데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그 이유... 뭐, 물론 이유야 있기는 하겠지만 충분히 그대로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확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잘못하면 폭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 그렇다면 조건부를 이렇게 거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품의 위치를 바꾸지 않는다면 ‘작품 주변을 현재 지금 작품이 표현돼 있는 그 형태로 주변 환경을 바꿔라.’ 라고 두 가지 조건을 건다고 하면, 어차피 건축주하고 협의가 돼 있다고 하면 건축주가 그러면 ‘그 주변을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 네가 작품을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얘기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건축주하고 관계없이 작가가 임의대로 선정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 작가가 가서 ‘나 이렇게,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라고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위치 조정이 필요하

쥬. 이게 어떻게 보면 양쪽에 대한 그게 다...

○○○ 그 위치를 조정을 할 때요, 대부분이 작가가 작가하고 의논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건축 그 주변 환경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장소에 작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나 여기다 하겠어.’ 이게 이런 식으로 설치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여기에서 논의된 상태에서 장소가 여기로 정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여기서 논의할 대상이 되나 싶습니다.

○○○ 예, 동의합니다.

○○○ 다수결로 하시죠.

○○○ 예.

○○○ 조율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 예, 그러면 그냥 조건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선생님. 그러면 22번도 동일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서기 2 22번.

○○○ 네, 24번이 또 있나요? 23번?

서 기 22번, 네.

○○○ 22번 저것은 나무 있는 데로 옮기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도 좋을 것 같은데.

○○○ 예, 좀

○○○ 네, 다른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네, 아까 심의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저거는 이제 지금 조정 공간이 전에도 제가 한번 같은 경험을 봤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좀 만들어지

는 조정 공간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저기다가 뭐 식재를 해서 저것들이, 나무들이 잘 살 수 있을 만한 조건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보기에는. 근데 이제 작품이 워낙 나무의 가격과 작품의 가격도 뭐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작품 가격도 좀 적은 가격도 아니고 하니까 좀 더 작품이 좀 좋은 자리에 놓여 질 수 있게끔 저 앞에 이제 조정 공간이 양보가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네.

○○○ 저기 도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앞에 큰 나무를 심지 말고 만약에 저 공간에 꼭 설치해야 된다면 낮은 나무 밑에 하는 건가 그런 정도면 시각적으로 크게 작품에 무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저 이제 앞에 나무가 크게 하나가 들어서니까 어떤 그런 작품을 가리는 어떤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요소들을 배제하고 그러면 뭐.

○○○ 그 녹지의 그 크기라든가 면적, 그에 따른 수목의 수량, 크기 이런 것들은 법적 기준이에요. 그냥 뭐 임의대로 ‘나무가 가리니까 그걸 빼야겠다.’ 이걸 좀 저희만의 생각이고요. 공개공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 중에서도 구청이 아니라, 시청하고의 협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녹지를 배분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건축주하고 또 협의가 돼야 돼요. 그게 지금 건축주하고 협의가 돼서 저기에 돼 있다라고 얘기가 또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그것도 또 위치 조정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작품이...

○○○ 조건부로 해서 하시죠, 아까 말씀...

○○○ 작품이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부분 그다음에 작품을 작품성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에 설치하기 위해서 건축주가 움직여주든

그다음에 작가가 움직여든 움직여야 되는데 작가가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은 되게 한계가 있죠. 그래서 건축주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건축주가 움직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 심의 쪽에서 이런 조건을 달아줬을 때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심의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건축주한테 그렇게 작가가 그런 식으로 통보하게 되면 거기서 어떤 작가도 힘을 받고 할 테니까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조건부로 이거는 조건부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공간의 확보라고 해야 되나요? 작품 설치, 공간 확보.

○○○ 녹지 쪽으로 장소 위치를.

서 기 녹지라고 표현하면 이해하실까요?

○○○ 하단? 하단?

서 기 하단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작품 위치 작품 위치 확보를 위해서 녹지 변경.’ 요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서 기 아, 위치 확보를 위해서?

○○○ 예, 예. 제가 건축심의를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녹지율에 따라서 건축심의에 그 비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변경해서 갈 수... 그 비율만 확정 이 되면 되는 거니까, 위치는 조금 바꿀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넣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서 기 이게 지금 여기 위치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는 건가요?

○○○ 네.

서 기 그러면은 표현을 ‘녹지 변경.’ 이렇게 해도 될까요?

○○○ 네.

○○○ 네, 네. ‘녹지 변경 검토.’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 저것만 갖고서는 이해하기 힘들지 모르니까 팔호에다가

서 기 네.

○○○ 예, 작품이 ‘작품과 건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가깝다.’ 그래서 건물 사이의...

○○○ 예, 공간 확보. 예, 그 사이에 공간 확보.

○○○ 예. ‘작품과 건물 사이의 공간 확보.’

○○○ 예.

서 기 그리고 이거 심의도서도 새로 받으면 되겠죠?

○○○ 네, 네.

서 기 권고로.

○○○ 네.

서 기 네. 다음에요.

○○○ 죄송한데 저거 두 개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로 이제 위치를 변경하려는 거잖아요, 녹지를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저 앞쪽에 있는 위치 확보를 위해서가 아니고, 작품하고 녹지 변경을 통해서 작품 위치를 변경하라, 이렇게.

○○○ 그렇죠, 네.

서 기 네, 뵈게요. ‘녹지를 변경하여’ 이렇게 넣으면 될까요?

○○○ 그러니까 작품하고 녹지를 변경해서 그 작품을 옮기라는 게 주 저희가 지금 토론했던 내용 같습니다.

서 기 작품과 건물 사이...

○○○ 아니, 아니요. 그냥 작품하고 녹지를 변경해서 그거 저기 작품 위치를... 그러니까 녹지 면적을 확보하라는 거잖아요. 작품 앞에 있는 녹지 면적으로.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는 거고.



서 기 작품… 아, 녹지를 변경해서 작품 위치를 바꿔… 그게 맞나요? 이렇게,  
이런 표현인가요? 아니실까요?

○○○ 괄호는 넣두셔야 될 것 같아요.

○○○ 변경으로만 쓰면 되겠다. 녹지를 변경하고

○○○ 변경만 써도 다 알 것 같아요.

○○○ 네.

서 기 그러면 이해될까요?

○○○ 예, 예.

○○○ 그 다음이?

○○○ 끝난 건가요?

서기 2 네, 네, 네.

위원장 심의의결서 결과를 다시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전부 가결 건수는 25건  
입니다. 가결 원안대로 가는 것은, 가결 작품 중에 원안대로 가는 것은  
15 작품이고요. 그것은 1, 2, 3, 4, 6, 7, 8, 9, 18, 19, 20, 21, 23, 24, 28  
번 작품입니다. 가결 작품 중에 조건부는 전부 3건입니다. 5번, 13번,  
22번 작품이 조건부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가결 작품의 권고사  
항은 7건이 있습니다. 10번, 11번, 12번, 14번, 15번, 16번, 17번 작품  
입니다. 부결 작품은 4건입니다. 25번, 26번, 27번, 29번 작품입니다. 이  
것으로서 2023년 제1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심껏 심의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  
셨습니다.

( 의사봉 3타 )

- 끝 -